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중·고령자 은퇴유형에 따른 우울수준 차이
: 은퇴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예 지

중·고령자 은퇴유형에 따른 우울수준 차이
: 은퇴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하 정 화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예 지

김예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6월

위 원 장 강 상 경 (인)

부 위 원 장 박 정 민 (인)

위 원 하 정 화 (인)



국문초록

중·고령자 은퇴유형에 따른 우울수준 차이 : 은퇴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예 지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령자 은퇴유형에 따른 우울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그 관계를 은퇴 전후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생애후기 주된 삶의 사건인 은퇴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은퇴가 개인의 건강이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Pearlin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적용하여 개인의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삶의 전환기인 은퇴를 스트레스원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스트레스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스트레스 반응, 특히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우울까지 이어지는지 살펴본다. 특히 주된일자리는 개인의 자아개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맥락을 고려해 결국 은퇴를 겪은 중·고령자는 자아개념, 그 중에서도 자아에 대한 평가적 부분을 담당하는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겪게 되고, 이러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높은 우울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

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원로서의 은퇴가 심리적 건강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은퇴를 이분법적으로만 정의하지 않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고려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주된일자리를 떠나 즉시 은퇴상태에 접어드는 전통적 개념으로의 ‘완전은퇴’와는 달리, 최근의 중·고령자들은 가교일자리, 창업 등의 ‘점진적은퇴’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진적은퇴자 집단은 주된일자리를 종료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은퇴자에는 해당되지만, 갑작스러운 비경제활동 상태로의 전환을 겪는 완전은퇴자 집단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는 역할이론에 따라 완전은퇴자의 경우 개인의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주된일자리를 잃는 것이 큰 혼란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지속이론에 따르면 점진적은퇴자의 경우 주된일자리는 떠나더라도 비슷한 직업역할을 지속함으로써 역할전이를 보다 적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에 따라 우울수준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은퇴 전후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에 따라 우울수준의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 변화에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중·고령자의 은퇴유형 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은퇴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가 매개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 8차(2013년도), 9차(2014년도), 10차(2015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8차시인 2013년도 기준 만 50세 이상이며 주된일자리에 근무 중이고, 9차시와 10차시의 근로정보에 응답한 1,030명의 중·고령자이다. 이때 주된

일자리는 응답자가 최소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며, 연간 근로시간이 최소 1,600시간 이상인 풀타임 일자리로 상정하였다. 이후 응답자들의 9차시와 10차시 사이의 근로정보를 바탕으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거나 가교일자리에 진입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중·고령자를 ‘점진적은퇴자’로 정의하며, 주된일자리를 떠난 후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인 중·고령자를 ‘완전은퇴자’로 구분하였다. 준거집단은 8차시 당시의 주된일자리를 10차시까지 지속하고 있는 ‘주된일자리 종사자’로 둔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구분한 은퇴유형에 따라 10차시인 2015년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 수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Baron & Kenny의 인과적 단계접근법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단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인 인구사회 및 건강관련 변수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자아 및 심리적 건강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기초선인 8차시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을 통제시켰다. 이는 은퇴 연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선택적 편향의 문제를 어느 정도 배제하고 기초선 집단의 성질을 비교적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인과관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비교했을 때 점진적은퇴자는 종속변수인 우울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완전은퇴자는 주된일자리 종사자보다 우울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완전히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 보다는 대체적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든 직업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중·고령자의 심리적 건강에 더 적응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결과 역시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점진적은퇴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완전은퇴자

는 주된일자리 종사자보다 은퇴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고했다. 즉 같은 기간 동안 주된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직업역할을 갖는 중·고령자에 비해 완전은퇴자의 은퇴 후 자아존중감이 악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완전은퇴 경험은 우울에 직접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 저하를 거쳐 간접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완전은퇴가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고, 자아존중감이라는 내적자원의 저하를 거쳐 우울로 발현된다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 나아가 역할이론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이러한 매개효과가 점진적은퇴자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이들 집단에서는 주된일자리가 다른 직업역할로 대체됨으로써 자아 및 심리적 건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지속이론의 맥락과도 연결되는 결과였다.

본 연구는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했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은퇴는 사회경제적지위의 대리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둘째, 정보가 풍부한 패널데이터를 재구성해서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주된일자리 및 점진적은퇴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넷째, 주된일자에 대한 주관적 의미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통해 누락된 정보를 포함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은퇴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자칫 과소평가될 수 있는 은퇴자의 경험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둘째, 은퇴자의 개인 내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었으며, 나아가 은퇴가 자아개념 및 정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고려해 은퇴자의 역할상실 및 역할전이가 개인 심리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보다 면밀히 고찰하였다. 셋째, 종단적으로 구성된 자료를 통해 기존 횡단연구가 방법론적으로 가졌던 한계를 일부 보완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중·고령자들에게 은퇴는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적 측면에서 은퇴자의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은퇴자들이 기존에 가치를 두었던 직업역할 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은퇴유형, 은퇴자 우울, 자아존중감 변화, 스트레스 과정 모델

학번: 2014-22323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10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1
제 1절. 연구 모델: 스트레스 과정 모델	11
제 2절. 중·고령자의 은퇴유형	15
1. 은퇴유형의 정의	15
2. 은퇴의 유형화	17
제 3절. 스트레스 반응으로의 우울	24
제 4절. 스트레스원으로서의 은퇴	26
제 5절.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	35
제 6절. 중·고령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	44
제 3장.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46
제 1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46
제 2절. 연구모형	47
제 4장. 연구방법	48
제 1절. 분석자료 및 변수의 측정	48
1. 분석자료	48
2. 변수의 측정	49
제 2절. 분석방법	56
제 5장. 연구결과	58
제 1절. 기초통계	58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8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토	61

3.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검증	64
4. 은퇴유형별 평균비교	69
제 2절. 가설검증	72
1. 은퇴유형과 우울의 관계	72
2. 은퇴와 은퇴 후 자아존중감 변화의 관계	73
3. 자아존중감 변화의 매개효과	74
제 6장. 결론	79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79
제 2절. 연구결과 논의	82
제 3절. 연구의 함의	88
1. 이론적 함의	88
2. 실천적 함의	91
제 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93
참고문헌	97
부록: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도구 설문문항	111
[표 차례]	
표 1 은퇴유형 구분표	51
표 2 변수의 구성	54
표 3 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60
표 4 주요변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토	63
표 5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토	67
표 6 변수 간 상관관계	68
표 7 은퇴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 관측빈도 및 평균 비교	71
표 8 Baron & Kenny(1986) 인과적 단계 회귀모형 분석결과	77
표 9 매개모형 유의도 검증	78
표 10 연구가설 지지 및 기각여부	81

[그림 차례]

그림 1 스트레스 과정 모델	12
그림 2 점진적은퇴의 개념 도식화	19
그림 3 개념적 모델	47
그림 4 완전은퇴-우울 매개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78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사회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서 발표한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회의 기대수명이 남성 78세, 여성 84.6세로 전체 평균 81세를 웃돌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65세 노인의 1000명 당 16명이 100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최근 연구결과(Kim & Kim, 2015) 등을 미루어볼 때 고령화에 대비하는 것은 더욱 불가피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애후기에 경험하게 되는 은퇴는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주로 논의되는 이슈이다. 특히 윤지은 & 전해정(2009)은 국내 근로자들이 40대 중반부터 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은퇴가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점차 늘어나는 평균수명을 고려한다면 은퇴자의 퇴직 후 생활이 25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김지경, 2005) 중·고령자의 은퇴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 큰 도전이 된다.

은퇴에 관련한 논의에는 비단 중·고령자의 은퇴 연령이나 생애후기 고용율과 같은 가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은퇴가 개인의 건강이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까지도 자연스럽게 포함된다(석상훈, 2011). 이는 경제활동참여가 개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합의에서 비롯되는데(Herzog, House & Morgan, 1991; 윤지은 & 전해정, 2009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Pearlman et al.(1981)이 제안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바탕으로 은퇴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은퇴는 개인의 생

애주기(Lifecourse), 그 중에서도 특히 생애후기에 경험하게 되는 전환기적 사건이자 긴장이다(윤현숙 외, 2012).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는 이런 전환기적 사건을 스트레스원(Stressor)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개인 삶의 불균형을 초래해 신체적 혹은 심리적 반응(Outcome)으로 그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보았다(Pearlin et al., 1981). 본 연구에서는 개인에게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 중 우울을 통해 중·고령자의 심리적 건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울은 실제 많은 연구에서 심리적 건강을 대표하는 변수로 활용되어져 왔다(유창민 & 강상경, 2015). 만약 이러한 우울이 방치될 경우 신체적, 인지적, 심리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하며, 삶의 질의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엄인숙, 2012), 은퇴를 경험하는 중·고령자의 우울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관심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연구에 앞서 기존의 은퇴연구, 특히 은퇴가 개인의 건강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은퇴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은퇴는 가장 오래 머물던 일자리, 즉 주된일자리(Career Job)¹⁾를 완전히 그만둔 상태를 가리킨다(박경숙, 2003). 그러나 평생직장의 의미가 강했던 과거와는 달리 IMF 경제 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이 증대되면서 은퇴의 형태가 기존의 이분법적인 개념을 넘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홍백의 & 김혜연, 2010). 만약 주된일자리로부터의 퇴직이 완전한 은퇴상태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

1) 주된일자리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예를 들어, 적어도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풀타임 일자리라고 본 연구(Quinn & Burhouse, 1990; Quinn, 1999; Cahill, Giandrea & Quinn, 2006; 이현기, 2003), 생애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자리라고 정의한 연구(Ruhm, 1990; 박경숙, 2003; 최옥금, 2011)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적어도 10년 이상 근속한 풀타임 일자리를 주된일자리로 상정한다.

나라면, 중·고령자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는가?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국내외 모두에서 주된일자리로부터 바로 완전은퇴로 진입하지 않고 가교일자리, 창업 등의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Gustman & Steinmeier, 1984; Ruhm, 1990; Quinn, 1999; Cahill, Giandrea & Quinn, 2006; 박경숙, 2003; 장지연, 2003; 최옥금, 2011). 즉 현대 사회에서 은퇴는 더 이상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며, ‘은퇴과정’, ‘일자리종료과정’, ‘노동시장이탈과정’, ‘일자리전이’와 같이 명명된 연속선상²⁾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형태를 띤다고 볼 수 있다(Ruhm, 1990; Cahill, Giandrea & Quinn, 2006, Kantarci & Soest, 2008). 이에 주된일자리부터 완전한 노동시장 이탈에 이르기까지의 전이 과정을 의미하는 ‘점진적은퇴(Gradual Retirement)’가 점차 표준적인 은퇴의 모델로 다뤄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Delsen & Reday-Mulvey, 1996; Ulrich & Brott, 2005).

일부 은퇴자는 주된일 자리를 종료한 후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점진적은퇴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완전한 은퇴자와는 다른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을 떠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직업적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가교일자리(Bridge Job)로의 진입,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등이 포함될 수 있다(Chen & Scott, 2003; Kantarci & Soest, 2008; 최옥금, 2011).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박경숙, 2003; 최문정, 2005; 지은정, 2006; 최옥금, 2011)에서 점진적은퇴의 유형으로 주로 논의되어왔던 주된일자리 종료 후 가교일자리³⁾로 진입한 중·고

2) 은퇴를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는 연구들에서는 기준 연령을 세움으로써 해당 시점 이래로의 과정을 은퇴과정 속에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평균 퇴직 연령을 고려하여 이를 50세 전후로 상정한 지은정(2006), 차경옥 & 김연주(2009), 장지연(2003), 한경혜 & 손정연(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들이 이미 은퇴과정에 들어선 것으로 간주한다.

령자, 혹은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점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중·고령자들을 점진적은퇴자로 상정하였다.

은퇴를 재개념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실제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 전통적 은퇴의 관점에서 벗어나 은퇴를 유형으로 구분해 다루었다. 앞서 언급한 점진적은퇴를 주된 은퇴유형으로 포함시킨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제활동에 관련한 정보를 포함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은퇴유형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분석하거나, 혹은 각 유형을 선택하게 하는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Gustman & Steinmeier, 1984; Ruhm, 1990; Quinn, 1999; Kim & Feldman, 2000; Clark & Quinn, 2002; Cahill, Giandrea & Quinn., 2006; 박경숙, 2003; 장지연, 2003; 박경하, 2011; 최옥금, 2011). 그러나 은퇴유형에 대한 기초적인 탐색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더 나아가 은퇴유형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50세 이후 은퇴 과정에 진입한 중·고령자들의 이후 직업역할 행보를 고려하여 ‘점진적은퇴자’ 집단, ‘완전은퇴자’ 집단으로 은퇴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은퇴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 중에서도 심리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 관계를 연결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연구의 개념적 모형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은퇴를 스트레스원으로 상정하였는데, 이러한 가정은 역할이론과 지속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들 이론은 주된일자리로부터의 은퇴는 중·고령자 삶에 큰 스트레스로, 그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본다(Carter & Cook, 1995; Ashforth, 2001; Atchley, 1989). 주된일자리는 개인의 자아

3) 본 연구에서는 Ruhm(1990)의 정의에 따라 주된일자리와 근로시간, 직종에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가교일자리라 정의하였다.

개념과 사회적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했고 결국 이러한 직업역할을 상실한다는 것은 내외적 변화를 초래하여 결국 큰 혼란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Carter & Cook, 1995; 윤현숙 & 이미진, 2007; 김지경 & 송현주, 2010). 그러나 앞서 다른 은퇴의 새로운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은퇴가 개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개념 역시 은퇴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비경제 활동 상태로 진입하기보다 주된일자리에서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종료해나가는 점진적은퇴는 은퇴자로서의 역할전이 과정을 보다 적응적이게 해주며, 역할 재조정을 돕고(Feldman, 1994; Ashforth, 2001 재인용) 개인의 내외적 지속성을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켜 심리적 건강을 비교적 좋게 유지할 수 있다(Zhan et al., 2009). 실제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은퇴인 상태나 은퇴로의 전이를 경험한 경우 일자리를 지속하는 이들에 비해 높은 우울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Bossé et al., 1987; Kim & Moen, 2000; Christ et al., 2007; 김효정 외, 2008; 안지선 & 전해정, 2012),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다양한 은퇴유형을 고려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점진적은퇴를 하는 경우 완전히 노동시장을 이탈한 중·고령자에 비해 낮은 우울수준을 보였다(Wang, 2007; Zhan et al., 2009; 한경혜 & 손정연,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 중·고령자의 은퇴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입각하여 은퇴가 개인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은퇴유형 별로 살펴본다.

은퇴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본 선행연구, 특히 은퇴를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삶의 사건으로 본 연구들은 은퇴자들과 아직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 간의 건강 혹은 안녕감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졌다(Bossé et al., 1987; Midanik et al., 1995; Kim & Moen, 2000; Mein et al., 2003; Reitzes et al., 2006; Christ et al., 2007; Dave et al., 2008; Jang et al., 2009; Zhan et al.,

2009; 김효정 외, 2008; 이아영, 2012). 이들 연구는 보다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은퇴자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과 주요 자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며, 사회역학적 관점에서 어떤 예측변인들이 신체적 혹은 심리적 문제나 낮은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지 규명함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은퇴로의 전이와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의 영향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조건이나 기제를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주된일자리 종료를 역할상실이라 상정한다면, 역할상실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은퇴자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정의한 내적 자원의 매개 역할을 바탕으로 스트레스원이 그 반응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심리적 기제를 규명한다. 특히 주된일자리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지위, 역할, 규범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 자아개념이 형성되어왔다는 맥락(Zhan et al., 2009)을 고려해, 주된일자리 종료 후 이 자아개념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심리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은퇴유형에 따른 심리적 건강에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측하였는데,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심리적 건강까지의 과정을 매개하는 자아개념에서도 두 집단은 상실 혹은 유지의 서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에 스트레스 과정 전반에 대한 은퇴유형별 고찰이 필요하다.

자아개념과 같은 내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발현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스트레스 상황 속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스트레스원의 영향을 받는 특정한 내적 자원이 스트레스 반응까지를 가교한다면, 결국 해당 자원을 증진시키는 것은 우울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개념들 중에

서도 스스로에 대한 평가적 측면을 담당하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특징적으로 다룬다. 자아존중감은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과정을 매개하는 자원으로 밝혀져 왔으며(김현순 & 김병석, 2007; 권태연, 2009; 임중철 외, 2012), 특히 생애후기를 겪는 중·고령자의 심리적 건강, 그 중에서도 우울과 높은 부적 관계성을 갖는다는 점(Steiger et al., 2014; 김동배 & 손의정, 2005; 전해숙 & 강상경, 2009; 김봉균 외, 2014)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은퇴를 겪은 중·고령자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논의뿐 만 아니라, 그 관계에 자아존중감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 은퇴 연구가 갖는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종단적으로 구성된 국내 데이터를 사용한다. 은퇴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선택적 편향(Selection Bias)의 문제를 배제시킬 수 없다. 즉 은퇴연구에서는 애초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강한 근로자 효과(Healthy Worker Effect: HWE)’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Arrighi & Hertz-Picciotto, 1994). 은퇴에 대한 연구에서 횡단적 자료만 사용하거나(Bossé et al., 1987; Kim & Feldman, 2000; Christ et al., 2007; 김효정 외, 2008; 한경혜 & 손정연, 2012), 종단자료이더라도 하나의 차시만을 기준으로 종속변수를 추출할 경우(이아영, 2012), 이러한 편향의 문제가 충분히 배제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은퇴와 심리적 건강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한다면 은퇴 전후의 변화 값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만약 이전 차시의 종속변수 값을 연구 모델의 예측변인 중 하나로 포함해 통제시킨다면 마지막 차시 종속변수의 초기 값(Constant)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Allison, 1994).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초선 집단의 성질을 비교

적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전 차시 기준 주된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후 직업이동 경험을 추적한 표본을 구성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직업역할, 그리고 이러한 직업역할에의 변화가 개인 내적 구조 및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비교적 비슷한 집단을 기준으로 이들의 이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즉 이전 차시 기준 주된일자리 종사자를 추출한 점이 소위 기초선으로 작용하여, 이후 은퇴경험이 자아개념 변화를 거쳐 우울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인과관계 확보를 시도한다.

실제로 일부 국외 문헌에서는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은퇴유형과 우울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Wang, 2007; Dave et al., 2008; Zhan et al., 2009). 그러나 이들 연구는 국외 자료를 기초로 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한국 중·고령자의 경험까지 확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년 연령이나 연금 수혜와 같은 노동시장의 고유한 특성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중·고령자에게 직업역할이 개인 내적으로 주는 의미는 서구에서의 개념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의 중·고령 근로자 및 은퇴자들의 현실을 보다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들의 이러한 분석 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중·고령자 은퇴경험을 유형별로 나누어, 이러한 경험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먼저 본 연구는 은퇴가 단일 사건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은퇴 유형화를 시도한다. 이는 선행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의하며,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주된일자리 이후의 직업역할 행보에 따라 ‘완전은퇴자’, ‘점진적이은퇴자’, ‘주된일자리 종사자’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한 은퇴는 개인 삶에 변화를 초래하는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의에 따라, 서로 다른 은퇴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직업역할 중에서도 오랜 기간 소속됐던 주된일 자리에서의 역할이 자아개념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앞서 확인한 은퇴와 심리적 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개인 내적 자원, 특히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앞서 구분한 은퇴유형 중 주된일자리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주된일자리를 유지하는 집단과 이를 종료한 나머지 두 집단 간의 비교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똑같이 주된일자리를 이탈했더라도, 그 후 역할 상실 및 역할전이의 유형에 따라 개인의 자아개념은 유지 혹은 상실되는지, 나아가 이를 매개로 심리적 건강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년 단위로 조사한 8차시, 9차시, 10차시 자료를 활용한다. 8차시 기준 주된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9차시, 10차시의 직업역할 이동을 바탕으로 은퇴 유형을 나누고,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되는 10차시 우울감과 매개변수인 10차시 자아존중감 값을 비교한다. 이때 8차시 우울감과 8차시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초기 값을 통제하고, 은퇴 후 어떤 변화가 있는가의 맥락에서 결과를 정리한다. 아울러 기초선 집단의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건강변수를 통제하여 선택적 편향의 문제 및 인과관계 문제를 가급적 보완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고령자 은퇴유형에 따른 우울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그 관계를 은퇴 전후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매개하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에 따라 우울수준의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2.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 변화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3. 중·고령자의 은퇴유형 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은퇴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가 매개하는가?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바탕으로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에 따른 우울수준, 그리고 그 관계를 매개하는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제 1절에서는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되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다룬다. 이에 따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제 2절에서는 은퇴를 정의한다. 이때 은퇴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에 주목하여 중·고령자의 은퇴를 유형화하고, 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다. 이어서 제 3절, 제 4절, 제 5절에서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토대로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우울을 상정하고, 왜 은퇴가 우울감을 일으키는 스트레스원으로 간주되는지 역할이론과 지속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며,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가정하는 관계들을 경험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그 한계점들을 고찰한다.

제 1절. 연구 모델: 스트레스 과정 모델

본 연구는 Pearlin et al.(1981)이 제시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을 분석틀로 한다. 해당 모델은 분절적인 개념으로서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현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스트레스와 신체 및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이론적 틀이다(Chan, 1998). 스트레스 과정 모델의 관점에서 중·고령자의 은퇴를 논하기 전, 해당 모델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들을 설명함으로써 모델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earlin et al.(1981)은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크게

스트레스원(Stressor), 매개요인(Mediator),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Outcome)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해당 모델의 구조는 다음의 [그림1]과 같다.



그림 2 스트레스 과정 모델

먼저 스트레스원이란 개인의 삶에서 등장하는 생애사건(Life Events)일수도 있으며,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긴장(Chronic Life Strains)일 수도 있다(정은경 외, 2015). 이 중에서도 생애사건이란 개인의 생애주기(Lifecourse), 즉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거치면서 경험하게 되는 전환기적 사건을 가리킨다. Pearlin과 동료들은 유기체의 항상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인간과 같은 유기체는 전환기적 사건 등을 통한 삶의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Cannon, 1935; Selye, 1956, Pearlin et al., 1981 재인용). 유기체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들의 내외적 항상성은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다른 부분에까지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재적응의 과정을 요구하게 되지만, 그 과정 동안 스트레스에 취약해질 수 있고 이는 신체적 혹은 심리적 반응으로서 드러나기도 한다(Pearlin et al., 1981). 특히 생애후기에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생애사건의 예로는 자녀의 출가, 은퇴, 사별 등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은퇴는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주된 직업역할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Zhan et al., 2009). 인간이 일정한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자아존

중감 유지에 필수적이며(김경숙, 1981), 이러한 맥락에서 실직이나 퇴직은 지적 열등감, 의욕상실, 빠른 노화 현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이광규, 1977). 또한 지연경 & 조병은(1991)은 한국 중·고령자들은 은퇴 후 경제적 혹은 심리사회적 차원에서의 충분한 대비가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은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보았다.

생애후기는 점차적으로 적응기능이 약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 삶에 변화를 초래하는 생애사건들은 결국 심리적 건강에의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이어진다(윤현숙 외, 2012).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은 개인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앞서 Pearlin et al.(1981)이 설명한 바와 같이, 스트레스는 신체적 혹은 심리적 반응을 보임으로서 발현되는데, 생화학적, 생리학적, 정서적 차원을 넘어 신체적 혹은 심리적 질병, 그리고 삶의 만족도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정은경 외, 2015). 그 중에서도 우울은 많은 연구에서 심리적 건강의 대표적인 지표로 다뤄져왔고(유창민 & 강상경, 2015), 스트레스 과정 모델의 선구자인 Pearlin et al.(1990)도 적응결과로 우울을 상정한 바 있다. 또한 Cohen(1990)은 인생 후기에는 질병, 사망, 상실, 등의 외생적 사건에 의해 우울이 자주 발생한다고 보았다. 특히 해당 시기의 우울, 나아가 우울증은 신체적 혹은 사회적 장애를 동반하며,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공공건강(Public Health)의 문제로 인식된다(Aldwin et al., 2002). 이에 본 연구에서 역시 생애 후기 스트레스원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울을 대표적인 심리적 건강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처럼 스트레스원은 우울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까지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는 스트레스원과 그 반응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다른 기제도 동시에 고려한다. 이러한 중간 기제가 바로 해당 모델에서 매개요인으로 설명되는 부분이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에의 노출은 그 관계를 매개하는 내외

적 자원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Pearlin et al., 1989; Price, Choi & Vinokur, 2002 재인용).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을 대표적인 자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역할상실과 같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삶의 사건이 자기(Self)를 약화시켰을 때 개인의 건강이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Pearlin et al.(1981)은 이러한 자아개념은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통제감(Mastery)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통제감은 자신이 해당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은 자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이러한 내적 자원을 상실하게 되면 스트레스원의 영향에 보다 취약해진다. 실제로 개인의 심리적 건강의 측면에서 자아개념의 저하는 우울 취약성과도 관련을 보이기 때문에 (Seligman, 1975, Pearlin et al., 1981 재인용), 매개요인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개인의 건강 손상에 미치는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내외적 자원들의 매개효과가 확인된다면 이를 증진시키는 것을 스트레스의 영향에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내적 자원인 자아개념, 그 중에서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주요 분석틀로 두고, 생애후기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대표적 스트레스인은 은퇴가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를 은퇴를 겪은 개인의 자아개념 변화, 세부적으로는 자아존중감 변화가 매개하는지 살펴본다. 이때 스트레스 과정 모델이 가정한 스트레스원의 발현까지의 과정이 은퇴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라 가정하고, 은퇴자의 심리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제 2절. 중·고령자의 은퇴유형

은퇴가 중·고령자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은퇴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은퇴를 주로 경제활동 유무의 이분법적 개념으로 나누었다(Van Den Bogaard et al., 2014).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로 은퇴의 형태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는 현실(홍백의 & 김혜연, 2010)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구분은 중·고령 은퇴자들의 경험을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현실을 보다 고려한 은퇴개념을 다루고자 한다.

1. 은퇴유형의 정의

은퇴의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따른 것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따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은퇴상태라고 보았다(Gunderson & Riddell, 1988; 백은영, 2009). 그러나 은퇴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개인 내외의 다양한 상황 등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이며, 전통적·전형적 은퇴를 경험하는 노동자와는 다른 경로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박경숙, 2003)에 주목해야 한다. Gibson(1987)은 전형적인 은퇴자(Typical Retirees)란 65세에 은퇴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은퇴자로 인식하는, 그리고 퇴직연금이 일차적인 소득원인 집단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은퇴에 관한 논의에 이러한 전형적인 은퇴자만을 포함시킬 경우 그 외의 주변적 노동자들의 경험은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은퇴연구에서도 주된일자리(Career Job)에서 은퇴한 사람의 33%가 결국에는 2년 이

내에 경제활동에 재진입 한다고 보았다(방하남 & 신인철, 2011). 이는 고령근로자들이 주된일자리 퇴직 후에도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노후의 이직 및 창업 등을 거쳐 완전한 은퇴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장지연, 2003). 따라서 은퇴는 경제활동 여부에만 초점을 둔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실제로 은퇴로의 전이가 복잡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공유하는 연구들에서는 은퇴를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보고 이를 ‘은퇴과정(Retirement Process)’, ‘일자리종료과정(Job-stopping Process)’, ‘노동시장이탈과정(Labor-force Withdrawal Process)’, ‘일자리전이(Work Transition)’ 등으로 개념화했다(Ruhm, 1990; Cahill, Giandrea & Quinn, 2006, Kantarci & Soest, 2008).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은퇴유형(Retirement Pattern)에 주목해 ‘언제’ 은퇴를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은퇴를 하느냐에 관심을 둔다(Ruhm, 1990; Quinn, Burkhauser & Myers, 1990; Quinn, 1999; Clark & Quinn, 2002; Cahill, Giandrea & Quinn, 2006; Wang, 2007).

한편 이러한 은퇴의 유형화를 위해서는 어느 시점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노동형태들을 포함하는지 기준점을 두어 구분해야 한다. 먼저 몇 세 이후를 은퇴과정에 포함시키는가에 대한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주된일자리로부터의 퇴직 연령이 50대 초에 머물러있으며(신동균, 2009), 실제 조사결과 임금근로자의 주된일자리 퇴직 연령이 평균 54세로(통계청, 2006; 차경욱 & 김연주, 2009 재인용), 그 중에서도 50-54세 사이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방하남 외, 2009). 또한 은퇴유형을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40대 후반(장지연, 2003; 한경혜 & 손정연, 2012), 50세(지은정, 2006; 차경욱 & 김연주, 2009) 55세(박경숙, 2003; 최옥금, 2011) 등부터 은퇴과정을 논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들이 이미 은퇴과정에 들어선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이후 은퇴경험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노동형태를 구분해 은퇴유형에 포함시키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주된일자리를 기점으로 이를 나눴는데, 가령 Ruhm(1990)은 자신이 가장 오래 종사했던 일자리, 즉 주된일자리로부터의 이동을 경험하는 것을 ‘부분적은퇴(Partial Retirement)’라는 유형으로 따로 구분하였고, Cahill, Giandrea, & Quinn(2006)은 주된일자리 이탈 이후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를 ‘점진적은퇴(Gradual Retirement)’라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개인의 직업력 중 무엇이 주된일자리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은퇴를 유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주된일자리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 대표적이다(Ruhm, 1990; Quinn, 1999; 최옥금, 2011; 한경혜 & 손정연, 2012). 예를 들어 Quinn & Burkhouse(1990)와 Quinn(1999), Cahill, Giandrea & Quinn.(2006)의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적어도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일제 일자리를, Ruhm(1990)과 최옥금(2011)은 생애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자리라고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Cahill, Giandrea & Quinn. (2006)의 정의를 바탕으로 연간 1,60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적어도 10년 동안 근속한 일자리를 주된일자리로 상정하여, 이후의 은퇴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2. 은퇴의 유형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은퇴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진다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Von Bonsdorff et al., 2009; Wang et al., 2008),

풀타임 근로에서 풀타임 여가로의 갑작스러운 전환 대신 ‘점진적은퇴(Gradual Retirement)’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Ulrich & Brott, 2005; De Vaus et al., 2007). 여기서 의미하는 점진적은퇴란, 이분법적인 ‘전통적 은퇴(Traditional Retirement)’ 혹은 ‘전형적 은퇴(Typical Retirement)’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퇴직 후 바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된일자리 이탈 전후로 다양한 직업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완전은퇴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차경욱 & 김연주, 2009). [그림2]와 같이 점진적은퇴는 주된일자리 이후 어떤 직업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나뉘기도 한다⁴⁾. 선행연구에서는 Kantarci & Soest(2008)가 점진적은퇴(Gradual Retirement)에 같은 일자리지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단계적은퇴(Phased Retirement)와 가교일자리로 이직함을 의미하는 ‘부분적은퇴(Partial Retirement)’를 포함시켰다. 또한 Chen & Scott(2003)은 점진적은퇴에 가교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나누기 등이 해당될 수 있음에 주목했다.

4) [그림2]는 최문정(2005)의 연구 p.10에 제시된 ‘은퇴과정’에 대한 모형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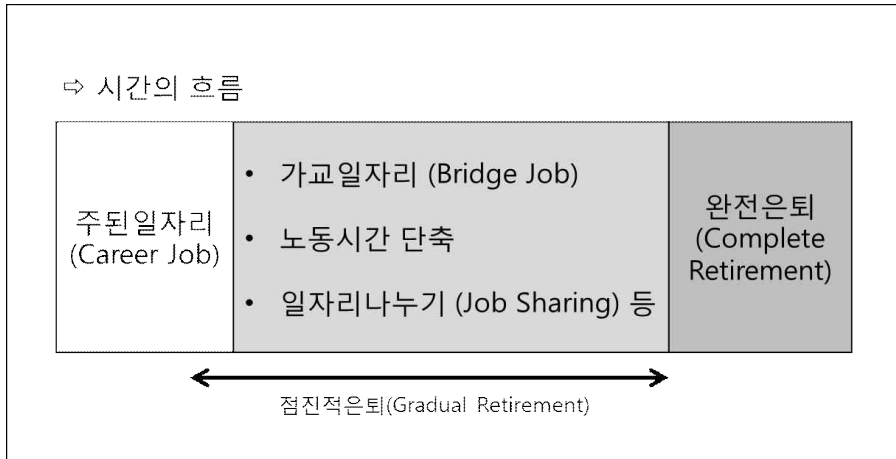


그림 3 점진적은퇴의 개념 도식화

이러한 새로운 은퇴유형으로의 점진적은퇴를 논한 연구는 국외에서는 1980년대 초반,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국외 문헌 중 Quinn(1999)은 가교일자리를 주된일자리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선택하는 여러 형태의 일자리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퇴유형을 ‘주된일자리 유지’, ‘가교일자리’, ‘완전은퇴’로 나누어 실제 미국 은퇴자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며, 그 유형을 선택하게 하는 예측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패널데이터 1-3차를 활용한 결과, 미국 은퇴자들은 마치 편견처럼 가지고 있던 취업-은퇴의 이분법적인 구분보다 훨씬 다양한 은퇴유형을 경험함을 확인했다.

같은 방법과 정의로 은퇴유형을 구분한 Cahill, Giandrea & Quinn (2006)의 연구는 더욱 누적된 1-6차의 HRS 패널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들 연구 결과, 응답자 중 60% 이상이 50세면 주된일자리를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바로 완전은퇴에 들어가지 않고 가교일자리를 통해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나아가 Ruhm(1990)은 주된일자리와 임금, 근로시간, 직종에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모두 가교일자리라고 보았고, 해당 유형의 은퇴자들을 부분적 은퇴자라고 정의했다. 그의 연구는 Retirement History Study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이 주된일 자리를 떠나 이러한 부분적 은퇴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Maestas(2004)의 연구 역시 연구 대상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중이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부분적 은퇴에 진입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국외의 연구 결과, 이러한 점진적은퇴의 경향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옥금(2011)은 국내 중·고령자 역시 근로시간 단축이나 자영업 창업, 가교일자리로의 전환 등의 경로를 통해 완전은퇴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은퇴과정을 탐색하였다. 해당 연구는 점진적은퇴 중에서도 특히 가교일 자리를 중심으로 은퇴유형을 ‘주된일 자리 유지’, ‘가교일 자리’, ‘비취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때 가교일 자리는 주된일 자리 은퇴 이후 55세 이후에 갖게 되는 일자리라고 구체적인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1-3차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 중·고령자가 주된일 자리를 유지할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가교일 자리에 진입할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또한 장지연(2003)의 연구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패널로 연결하여 중·고령자의 경력이동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중·고령자 중 전일제 취업을 하고 있던 사람의 상당수가 근로시간 단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한 자영업자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이때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창업의 경향성이 일부 나타났다. 이는 성지미 & 안주엽(2004)의 연구결과와도 연결되

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임금근로자의 창업과 같이 주된 일자리 직종과는 차이가 있는 가교일자리로의 진입이 두드러짐을 확인했다.

이처럼 은퇴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국내외 모두에서 단순히 근로활동 유무의 개념으로 은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 중·고령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및 가교일자리로의 진입이 점진적은퇴의 주된 방법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을 점진적은퇴자로 정의하고 논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국내외 모두에서 점진적은퇴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은퇴를 과정으로 보고, 그 안의 다양한 유형을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등장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아직까지는 유형화 그 자체에 대한 시도, 혹은 은퇴자의 은퇴유형 선택을 예측하기 위한 탐색적 수준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Gustman & Steinmeier, 1984; Ruhm, 1990; Quinn, 1999; Clark & Quinn, 2002; Cahill, Giandrea & Quinn, 2006; 박경숙, 2003; 장지연, 2003; 박경하, 2011; 최옥금, 2011).

한편, 해당 유형이 개인의 건강 및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 외국에서는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Kim & Feldman, 2000; Wang, 2007; Dave et al., 2008; Zhan et al., 2009), 국내 연구로는 한경혜 & 손정연(2012), 이아영(2012)이 은퇴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혹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두 연구 모두 은퇴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한경혜 & 손정연(2012)의 연구는 경제자원 및 관계자원의 매개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횡단자

료를 바탕으로 하고, 베이비붐 세대만 특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아영(2012)의 연구는 종단적으로 은퇴 유형을 구성하였으나, 종속변수는 마지막 차시에서만 횡단적으로 추출되어 여전히 내생성 문제를 갖는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Dave et al. (2008)의 연구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조건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 문헌의 국내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중·고령자의 은퇴 유형이 그들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 특히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때 은퇴유형에는 완전 은퇴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주된일자리를 종료해나가는 점진적 은퇴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 지난 연구들을 바탕으로(Ruhm, 1990; Quinn, 1999; Chen & Scott, 2003; Maestas, 2004; Cahill, Giandrea & Quinn, 2006; De Vaus et al., 2007; Kantarci & Soest, 2008; 박경숙, 2003; 장지연, 2003; 차경옥 & 김연주, 2009; 최옥금, 2011) 국내 중·고령자들을 ‘주된일자리 종사자’, ‘점진적 은퇴자’, ‘완전 은퇴자’의 세 가지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중·고령 은퇴자들의 경험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때 유형 간의 주요 구분점이 되는 주된일자리는 최소 10년 동안 근속한 풀타임 일자리로 정의하며, 이에 속하는 이들을 ‘주된일자리 종사자’로 분류한다.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자료의 첫 번째 차시를 기준으로 주된일자리에 종사하는 이들의 이후 두 차시 직업이동을 고려하여 ‘점진적 은퇴자’ 및 ‘완전 은퇴자’로 구분한다. 이때 점진적 은퇴자 집단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점차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는 중·고령자, 혹은 주된일자리 종료 후 가교일자리⁵⁾

로 진입한 중·고령자들을 포함시킨다(Chen & Scott, 2003; Kantarci & Soest, 2008). 마지막으로 완전은퇴자는 마찬가지로 주된일자리 사직경험이 있지만, 이후 차시 동안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인 집단으로 정의하여 연구에 포함시킨다.

5) 본 연구에서는 Ruhm(1990)의 정의에 따라 주된일자리와 근로시간, 직종에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가교일자리라고 정의하였다.

제 3절. 스트레스 반응으로의 우울

우울이란 슬픔, 자포자기, 절망, 비관, 활동 저하, 절망감 등의 특징을 갖는 반응을 가리킨다(Barker, 2003). 이와 관련한 개념으로 우울증이란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상태를 뜻하며, 해당 우울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능상 장애가 생긴 경우를 우울장애⁶⁾라고 칭한다(APA, 2015).

스트레스 과정 관점에서는 스트레스 상황 속의 개인이 불안이나 갈등을 겪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으로서 이러한 우울을 설명하는데(엄인숙,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생애후기는 은퇴, 죽음, 노화 등 삶의 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아 우울에 취약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이민수 외, 2000; 김동배 & 손의성, 2005). 더구나 본 연구에서 은퇴에 진입하는 시기로 설정한 50대는 일반적으로 권력, 리더십, 지혜 등을 획득할 수 있는 시기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건강과 활력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며, 은퇴와 같은 급작스러운 변화나 문제가 발생하면 중년기위기(Middle Life Crisis)를 겪게 되고, 이는 불안과 우울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민성길, 2015). 이들 집단, 특히 베이비붐 세대로 특징지어지는 해당 세대는 과거의 어떤 세대보다 직장에서 일찍 퇴직하고, 늘어난 평균 수명으로 인해 오랜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할 세대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방하남 & 신인철, 2011), 해당 시기의 우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경우, 우울은 기능적인 한계와 장애에 영향을

6) 임상적으로 기준이 되는 증상의 다섯 가지 이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될 때 주요우울장애라는 진단을 내리게 된다. 구체적으로 APA(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제시한 DSM-5의 기준에서는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비의도적인 체중 감소, 불면 및 과다수면, 초조함, 피로감, 무가치감 및 죄책감, 집중력 감소, 자살생각을 주된 우울증상으로 보고 있다(권준수 외 공역., 2015)

주고(Geerlings et al., 2001), 인지적 역기능과도 이어지며(이정윤, 1999), 삶의 질 저하 및 심각하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자살의 문제와도 관련된다(최미영 외, 2015). 또한 우울증은 2020년 5대 부담질병 추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부담질병으로 예측되어(Murray & Lopez, 1996; 김동배 & 손의성, 2005 재인용) 우울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부담 역시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울이 개인과 사회에 초래하는 결과를 살펴본 바, 이는 중·고령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심리적 문제이며,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할 주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은퇴자의 우울감은 은퇴로 인한 불안이나 혼란과 같은 측면을 포착할 수 있게 하며,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안녕감의 특정한 측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Reitzes et al., 1996), 본 연구는 중·고령 은퇴자의 우울을 통해 심리적 건강상태와 안녕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4절. 스트레스원으로서의 은퇴

스트레스 이론에서 스트레스원(Stressor)이란 개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 이에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생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가리킨다.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협하거나 중요한 관계에 지장을 주는 삶의 사건들은 스트레스원으로서 작용하게 되며(Thoits, 1983), 이러한 스트레스원 때문에 나타나는 내적 역기능을 스트레스라고 정의하고 있다(Pearlin & Bierman,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유기체에게 변화를 초래하는 생애사건은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은퇴는 생애후기에 겪게 되는 대표적인 전환기적 사건으로, 개인에게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요구한다(윤현숙 외, 2012).

은퇴가 스트레스원이라는 맥락은 역할이론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Streib & Schneider(1971), 그리고 Blau(1973)의 연구에서 은퇴를 역할상실(Role Loss)과 역할전이(Role Transition)의 개념으로 상정한 것에서 비롯된다(김지경 & 송현주, 2010 재인용). 먼저 역할이론에서는 개인의 삶에서 갖게 되는 직업, 특히 주된일자리를 개인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역할이자 자아정체감 형성의 강력한 원천이라고 가정한다(Zhan et al., 2009). 전통적으로 직업 또는 일이란 주요 소득원으로서의 정의되어왔지만, Atchley(1976)는 개인에게 있어 직업이란 이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개인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주어진 시간 동안 구조화된 행위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맺는 관계를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유지되며(Sieber, 1974), 직장에서 일어나는 도전적, 창의적이며 의미 있는 경험들을 거쳐 삶의 목적을 갖는다(Van Den Bogaard et al., 2014). 특히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상 직장은 정신적, 사회적, 생리적 욕구 충족을 시키는 주된 역할이며, 심지어 취미 생활까지

직장에서 전념하기도 한다(장인협 & 최성재, 1987). 이렇듯 직업이 갖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개인이 오랜 시간 몸담았던 주된일자리에서의 은퇴는 생애후기 삶의 적응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환기적 사건이다(지연경 & 조병은, 1991).

이러한 맥락에서 역할이론은 주된일자리를 잃는 것을 ‘역할상실’이 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역할에서 물리적·심리적으로 이동해 은퇴에 이른다는 ‘역할전이’의 과정으로 본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직업에서 비롯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므로 주된일자리에서의 직업역할은 개인의 자아개념, 그 중에서도 특히 자아존중감, 자율성, 자기가치감, 삶의 목적 등과 큰 관련성을 갖는다(Hooker, 1991; Newman et al., 2012). 따라서 주된일자리에서 은퇴하는 것은 자아개념에 대한 위기로 이어져(윤현숙 & 이미진, 2007), 결국 이러한 역할상실과 역할전이는 은퇴자의 삶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은퇴가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Midanik et al., 1995; Mein et al., 2003; Jang et al., 2009).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결과, 특히 국내의 연구들은 은퇴가 불안 또는 우울증 등 개인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낮은 삶의 만족도까지도 이어짐을 밝혔다(Bossé et al., 1987; Kim & Moen, 2000; Christ et al., 2007; Wang, 2007; Dave et al., 2008; Zhan et al., 2009; 김효정 외, 2008; 안지선 & 전해정, 2012; 이아영, 2012; 한경혜 & 손정연, 2012).

이때,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은퇴가 경제활동 유무의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은퇴가 개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개념 역시 은퇴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지속이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이론은 개인이 노령화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외부의 구조(Structure)를 유지시킬 것이라고 가정한다(Atchley, 1989). 개인이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압력을 인식했을 때 내외적 지속성⁷⁾을 유지할 동기를 갖게 되며, 이를 위해 자신의 과거경험에서 습득한 전략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나 혼란을 일으키는 사건을 피하고자 할 것이라 보았다(Zhan et al., 2009). 이렇듯 개인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은퇴과정 속에서 자기를 유지하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건강이나 안녕감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Wang, 2007). 실제로 은퇴자들은 은퇴 후 적응을 위해 능력, 개인적 목표, 활동수준, 태도, 역할과 같은 자아개념을 유지함으로써 내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Troll & Skaff, 1997). 특히 개인에게 내외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역할로서의 주된일자리를 종료한 후 완전한 은퇴에 이르기 전까지 경제활동이나 소일거리로 이를 대체하는 점진적은퇴는 은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은퇴 전부터 가치를 두었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구조나 관계들을 비교적 전과 같이 유지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이다(Atchley, 1989).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직업역할이 개인 내적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은퇴가 스트레스원임을 상정하고자 한다. 이는 주된일자리로부터의 은퇴는 자아개념의 위기를 초래하여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역할이론의 맥락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지속이론의 논리에 따르면, 주된일자리를 종료하는 과정에 있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역할을 갖거나 점진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 은퇴자들의 자아개념은 유지되고, 이는 비교적 적응적인 은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똑같은 은퇴자라고 할지라도 점진적은퇴자의 경우 자신의 삶에 주가 되었던 역할을 어떤

7) 내적 지속성이란 자아(Self)나 정체성(Identity)와도 연결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생각, 기질, 경험, 선호, 기술 등에 대한 심리내적 구조를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외적 지속성은 물리적·사회적 환경, 역할관계, 활동 등의 외재적 행동 그 자체나 자신의 사회적지지, 사회적 관계 등을 유지시킴을 뜻한다(Atchley, 1989; Parker, 1995).

형태로든 지속함으로써 은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은퇴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은퇴를 정의함에 있어 전통적 은퇴만을 포함시켜 은퇴자와 비은퇴자 간의 심리적 건강을 비교한 연구들과, 최근에 들어 점진적은퇴까지도 은퇴유형으로 포함하여 유형 간 차이를 보고자 한 연구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은퇴와 심리적 건강의 관계성, 나아가 은퇴유형에 따른 차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은퇴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국외 문헌으로는 전통적 은퇴 개념을 바탕으로 은퇴자와 비은퇴자 간의 심리적 건강상태를 횡단적으로 비교한 Bossé et al.(1987)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가 사용한 Normative Aging Study 데이터는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통해 심리적 건강상태를 측정했다. 연구결과 신체적 건강상태를 통제한 이후에도 은퇴자들은 비은퇴자들에 비해 우울 등의 심리적 증상들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있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Christ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현재 취업 중인 노인이 비취업집단 대비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우울증상을 보였으나, 이 영향은 신체장애를 통제시켰을 때 사라졌음을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취업과 심리적 건강 간의 관계에는 ‘건강한 근로자 효과(Healthy Worker Effect)’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Bossé et al.(1987)과 Christ et al.(2007)의 연구는 취업형태를 주된일자리, 가교일자리 등으로 충분히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현실의 반영에는 한계가 있으며, 횡단연구라는 점에서 인과관계 설명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어 Kim & Moen(2000)은 은퇴로의 전이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고, 집단을 '장기은퇴자', '은퇴전이', '주된일자리근로자'로 나누어 분석했다. 해당 연구 결과 지난 2년 사이에 은퇴전이를 경험한 남성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사기(仕記)를 보이는 반면, 장기은퇴자 집단은 가장 높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해당 연구는 은퇴유형을 구분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은퇴 논의보다는 진보적이지만, 그 유형은 은퇴 이후 경과된 시간에 따라 구분된 것이며 은퇴에 대한 구분은 여전히 전통적 은퇴의 관점을 따르고 있었다.

국내의 문헌으로는 김효정 외(2008)의 연구에서는 은퇴한 남자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를 고찰했다. 결과적으로 은퇴스트레스는 직접적인 경로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은퇴노인만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켜 은퇴유형 간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은퇴자와 비은퇴자 간의 정신건강 차이를 비교한 연구로는 안지선 & 전해정(2012)의 연구가 있다. 이는 특히 t년도의 취업상태에서 t+1년도 은퇴로 넘어가는 '은퇴전이'를 논의에 포함시켜, 해당 집단과 지속적으로 취업 중인 집단과의 정신건강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특히 성별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결과적으로 은퇴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러한 효과는 남성 집단에서만 유의미했다. 해당 연구는 횡단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은퇴유형이 세분화 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은퇴유형에 가교일자리를 통한 점진적은퇴자를 포함시켜 심리적 건강에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외 연구로 Zhan et al. (2009)은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교일자리가 은퇴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파악했으며, 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의 직종도 고려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가교일자리에 참여하는 은퇴자들은 완전은퇴자들에 비해 더 좋은 심리적 건강상태를 보고했으며, 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 간의 직종이 일치하는 경우에 더 좋은 심리적 건강상태를 보였다.

또한 Dave et al.(2008)은 인과관계 확보를 위해 HRS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은퇴가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때 은퇴유형을 완전은퇴자와 부분적이은퇴자로 나누어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결과, 은퇴 후 완전히 일자리를 떠난 완전은퇴자의 경우 정신건강상태가 악화된 반면, 새로운 파트타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적이은퇴자들은 건강에의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의 심리적 건강상태는 완전은퇴자 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Wang(2007)도 마찬가지로 HRS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은퇴 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적 요인으로 가교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석에 포함시켰는데, 연구 결과 완전은퇴자에 비해 가교일자리를 가진 은퇴자들은 주된일자리 은퇴 전후 심리적 안녕감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앞선 연구들은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은퇴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모두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종단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HRS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Zhan et al.(2009), Dave et al.(2008), Wang(2007)의 연구결과는 국가마다 노동시장의 조건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중·고령 은퇴자들에게까지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는 점진적이은퇴를 포함시킨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비슷하게는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은퇴유형이 자기수용과 성숙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한경혜 & 손정연(2012)의 연구가 있다. 한경혜 & 손정연(2012)이

베이비붐 세대 4,07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과정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은퇴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주된일자리 종사’, ‘주된일자리 퇴직 후 가교일자리 종사’, ‘주된일자리 퇴직 후 비취업’, ‘완전은퇴’로 범주화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은퇴 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남성은 주된일자리든 가교일자리든 현재 경제활동 중인 남성보다 낮은 심리적복지감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본 조사자료를 사용해 가교일자리라고 하는 점진적은퇴의 유형을 논의에 포함시켰다는 점, 그리고 각 유형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요인을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는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의 출생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중·고령자 모두의 은퇴경험을 아우를 수 없으며, 횡단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내생성 문제가 고려되지 못했다.

아울러 이아영(2012)의 연구에서는 다차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결정 요인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국내 중·고령자들의 경우, ‘퇴직후근로유형’이 ‘완전퇴직유형’에 속한 근로자보다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당 연구는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은퇴자들의 경제활동상태를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유형화했다는 점, 그리고 국가비교를 통해 노동시장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때 유형화는 풀타임근로 이후의 행보에 따라 구분되었는데, 여기서 활용된 풀타임근로가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주된일자리인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은퇴자의 정서적 관여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은퇴유형은 종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분되었으나, 행복감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유형별로 마지막 차시에 응답한 ‘행복’, ‘보통’, ‘행복하지 않음’ 집단 각각에 속할 확률만을 분석하고 있었다. 즉 행복감이라고

하는 개인 심리적 변수는 종단적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 여전히 선택적 편향 및 내생성 문제가 존재한다.

선행연구별로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차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자면, 전통적 은퇴관점의 선행연구에서는 은퇴인 상태나 은퇴로의 전이를 경험한 경우 일자리를 지속중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우울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나아가 다양한 은퇴유형을 고려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가교일자리 진입과 같이 점진적은퇴를 하는 경우, 완전한 은퇴상태인 이들에 비해 낮은 우울수준을 보이고 있었다(cf. 이아영, 2012). 이는 해당 일자리가 오랜 시기를 담았던 주된 일자리든, 아니면 이를 종료하는 과정 속에서 갖는 파트타임 일자리 혹은 새롭게 진입한 가교일자리든, 결국 현재 직업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완전은퇴자들 보다는 더 좋은 심리적 건강상태를 보여준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주된일자리 종료 후 직업역할과 관련한 조건에 따라 심리적 건강 수준에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결과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상반되게 보고하거나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여 역할이론과 지속이론과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가령, Midanik et al.(1995)의 연구에서는 은퇴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The Kaiser Permanent Retirement Study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했다. 여기서 사용한 심리적 건강에는 우울을 포함한 스트레스, 대처와 같은 변수들이 측정되었다. 연구결과, 기초선 대비 추적 검사에서 은퇴자들과 비은퇴자들 모두 우울감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은퇴자들이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Mein et al.(2003)의 영국 Whitehall 종단연구 결과, 54세에서 59세에서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은퇴 후 심리적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일을 지속

하고 있는 그룹에서 더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은퇴자 집단에서는 오히려 심리적 건강이 증대되는 효과를 보였다. 국내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Jang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성과 여성에서는 취업 상태가 낮은 우울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으나 노년기 남성과 여성에게서는 그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앞선 선행연구와는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지만, Dave et al.(2008)에 따르면 이는 연구들이 가진 한계점이 일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샘플의 수가 적거나, 국가마다 다른 노동시장의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또한 횡단자료 사용에 따른 실험-통제 집단이 구분되지 않고 내생성 문제가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 등을 제시하며,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보다 정교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 5절.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란 자아개념(Self-concept)의 부분이자 이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왔다(Cast & Burke, 2002).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괄하는 자아개념에 대한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자기(Self)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호작용 안에서 '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성찰과정을 가리킨다(James, 1890; Mead, 1934; Gecas, 1982 재인용). 그러나 이 개념 자체로는 경험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성찰과정의 산물로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아개념인 것이다(Gecas, 1982). 자아개념은 결국 개인이 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하고 기능하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Epstein, 1973). 자아존중감은 이러한 자아개념의 평가적인 측면으로,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Rosenberg 1965). 자아개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평가적 측면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종종 자아개념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되기도 했다(Wells & Marwell, 1976; Gecas, 1982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심리, 정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정은석 & 강상경, 2015). 실제로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안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보다 안정적인 정서를 갖는다(Campbell et al., 1991; Campbell, 1990; Baumeister, 1998).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이들은 전반적으로 절망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있었다(Tennen & Herzberger, 1987; Crocker et al., 1994; Mann et al., 2004; 김동배 & 손의정, 2005; 전해숙 & 강상경, 2009, 김봉균 외., 2014).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심리적인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강조되고 있으며(Maslow, 1987), 따라서 생애후기를 겪는 중·고령자 집단의 심리적 건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중·고령자 집단에서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건강이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김동배 & 손의정(2005)은 지난 10년간의 국내 노인 우울 연구를 메타분석함으로써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인구학적 변인군보다 심리적 변인군이 우울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지난 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관계성을 보이는 변인으로 드러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종단적 연구모형을 통해 각 변인들의 변화 값을 살펴보거나,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등을 활용해 우울의 궤적,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김봉균 외(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시에서 7차시까지의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요인을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로서 횡단적, 종단적 모형 모두에서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울의 궤적과 그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살펴본 또 다른 연구로, 전해숙 & 강상경(2009)은 생애후기 우울궤적을 살펴보고 이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우울 초기 값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로 밝혀졌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들의 경우 모형의 출발점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우울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Steiger et al.(2014)는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우울감 변화를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거나, 자아존중감의 감소를 경험한 이들이 우울감 초기 값을 통제하고도 19년 후 더 높은 우울수준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선행연구가 입증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높은 자아존중감, 혹은 어떤 경우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는가? 일각에서는 자아존중감, 또는 이를 포괄하는 자아개념을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의 성격으로 간주하기도 한다(Hooker, 1991; Mruk, 2006). 이러한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갖는 중재효과를 관찰할 수도 있다(Campbell et al., 1991).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자아존중감을 사회적 경험에 따라서 빚어지는 것으로 보아, 결국 잠정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Mead, 1934; Gergen, 1971; Sherman, 1981). 특히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발생시키는 환경, 즉 개인을 둘러싼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불안정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Kernis et al., 1993; Roosa et al., 1988; Burt et al., 1988 Robins & Trzesniewski, 2005; 권태연, 2009). 그 중에서도 은퇴, 보다 포괄적으로 직업역할 상실은 대표적인 스트레스원으로서 자아존중감에 부적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송지은 & Marks, 2007; 김혜미 외, 2015; 정은석 & 강상경, 2015).

그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먼저 송지은 & Marks(2007)는 미국의 전국규모 종단자료인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의 1987년, 1999년 두 시점 자료를 바탕으로 은퇴자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았다. 은퇴 후 경과시간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두

시점에 걸쳐 지속적으로 은퇴 상태인 경우,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였던 이들에 비해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또한 두 시점 사이에 은퇴전이를 경험한 경우,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였던 이들에 비해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정은석 & 강상경 (2015)의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7차시에 취업상태였던 이들의 8차시 실직으로의 변화 후 자아존중감 변화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횡단연구와의 차별성을 보였다. 연구결과 실직을 경험한 집단이 취업을 유지한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때 자아존중감 초기 값이 통제됐다는 점에서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정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김혜미 외(2015)의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시에서 8차시의 자료를 활용해 생애주기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도 전체 연령집단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 변화요인을 살펴본 결과, 특히 고용여부는 청년층을 제외한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전반적으로 생애후기 은퇴, 직업역할의 상실은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은퇴나 직업역할 상실이 자아존중감과 부적관계를 보인다면, 점진적은퇴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점진적은퇴를 은퇴과정의 한 유형이라 개념화하고, 자아존중감과 관계의 규명한 연구는 없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생애후기 직업역할로의 새로운 진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이지현 외(2008)의 연구는 취업이 노인의 삶의 질, 그리고 그 하위요인으로서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두 차시의 추적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

해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1차시 미취업자였던 노인들의 이후 직업 이동을 고려하여 2차시 기준 취업, 취업 예정, 미취업 노인들의 차시간 삶의 질 하위요소들을 비교하였다. 집단 간 자아존중감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는 지속적 미취업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자아존중감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특정 취업훈련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던 노인 69명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통계적 검증력(Statistical Power)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 기관에서 표본이 추출되었다는 점에서 표본 대표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고령자 재취업은 아니지만, 점진적은 퇴자에 대한 본 연구의 정의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⁸⁾에 참여 중인 고령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논의도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치영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 중 노인일자리 참여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비참여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경제, 건강 관련 변수를 통제했을 때도 일자리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박영미 & 김병규(2015)의 연구는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노인 833명과 비참여노인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가 자아존중감과 정적관계를 가짐을 밝혔다. 이는 기타 통제변수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자아개념에 역할이 주는 의미를 상기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권치영 외(2007), 박영미 & 김병규(2015)의 연구

8)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 2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2004년 도입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시행의 목적을 둔다(보건복지부, 2014).

는 횡단적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실직 후 자아존중감이 변화한 것인지, 아니면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사람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황미구 & 김은주(2008)의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과 비참여 노인의 자아존중감 차이를 보았는데, 이를 두 차이를 간격으로 추적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인과관계 설명에 더 유리하다. 연구결과는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자아존중감이 1차, 2차시에 거쳐 유지된 반면, 비참여노인의 경우 2차시 기준 유의미하게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주된일자리를 점진적으로 종료한다는 점진적은퇴의 맥락과 일치하진 않으나, 새로운 직업역할에 진입했다는 맥락에서 일부 참고할 수 있다⁹⁾.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자아존중감이 개인 심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런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국 스트레스원에 대한 노출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의 주된 논리이기도 하다(Pearlin & Bierman, 2013). 매개효과를 살펴본다는 것은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개인이 지각하는 바를 도입하여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Lowenthal, Thurner & Chiriboga, 1975; George, 1980; 지연경, 조병은, 1991 재인용). 이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스트레스원을 감소시키는 차원을 넘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연결하는 가변적 중간 기제에도 개입해야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권태연, 2009).

실제로 이러한 매개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

9)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특정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다 일반적인 맥락으로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면, 먼저 김현순 & 김병석(2007)의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를 불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낮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증가시키는 경로가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매개모형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인 및 경제, 건강상태 관련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노년기 우울감에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변수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순수하게 설명변수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또한 자료수집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 한정된다는 점에서도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또 다른 연구로 권태연(2009)은 경로분석과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생애후기 스트레스 요인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 준다고 보고했다. 특히 해당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각각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누고 고령자를 연령집단 별로 나누어 매개관계를 검증하고자 구체적인 연구모형을 구성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시의 자료를 활용한 횡단연구라는 점에서 인과관계 증명에는 상대적으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앞선 연구들이 스트레스원으로 상정한 설명변수가 본 연구의 가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김현순 & 김병석(2007)의 연구에서 활용한 스트레스 척도는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원으로 상정한 은퇴, 직업역할과는 달리 보다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측정했다. 또한 권태연(2009)의 경우는 고령자가 흔히 겪는 스트레스로 건강이나 생활과 관련한 요인들을 상정하였으며, 은퇴 혹은 직업역할 유무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개념적으로, 혹은 방법론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앞서 열거한 선행연구 결과는 일관적으로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가정하는 스트레스원과 그에 따른 반응, 그리고 그 사이를 매개하는 내적자원의 역할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이 점진적은퇴자 집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제로 점진적은퇴자들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한정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서 점진적은퇴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고찰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연구와 맥락을 일부 공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임중철 외(2012)의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경제, 건강 관련 변수를 통제하고도 노인의 일자리 참여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높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해석에는 유의해야 하는데, 일단 해당 연구는 국내 특정 지역에서만 표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으며, 횡단적으로 구성된 자료라는 점에서 인과관계 증명에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애초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일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건강한 근로자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은퇴, 자아존중감, 그리고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스트레스원으로서 은퇴를 상정하고 우울이라는 스트레스 반응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이때 기존 선행연구에서 간과했던 은퇴유형에 따라 비교함으로써 직업역할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확인한다. 또한 직업역할이 개인의 자아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은퇴 후의 자아개념의 변화가 우울까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제로 작용하는지 밝힌다. 나아가, 똑같이 주된일자리를 상실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직업역할을 갖거나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등 보다 점진적인 은퇴를 경험하는 경우 스트레스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은퇴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은퇴 후 적응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제 6절. 중·고령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

본 절에서는 은퇴유형을 제외하고도 중·고령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변수들을 고찰한다. 이는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지위 변수, 건강관련 변수, 그리고 사전우울점수로 구분한다.

먼저 인구학적 변수로는 성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우울수준을 갖는다고 보고된다(Mirowsky, 1996; Zunzunegui et al., 1998; Zhan et al., 2009; 김재엽 외, 1998; 강희숙 & 김근조, 2000; 강상경 & 권태연, 2008; 이윤지, 2013). 또한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진다고 보았다(Sachs-Ericsson & Ciarlo, 2000; Zhan et al., 2009; 허준수 & 유수현, 2002). 아울러 결혼상태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더 높은 우울수준을 보고한 바 있다(Mirowsky & Ross, 1992; Wilcox et al., 2003; 권태연, 2009; 이윤지, 2013).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경제 상태와 학력이 중·고령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소득의 경우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성미애 & 최새은, 2010). 실제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좋은 심리적 건강상태를 보고하고 있었다(Zhan et al., 2009; 전해정 & 김명용, 2014). 또한 학력 역시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로 알려져 왔다.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고령자가 낮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을수록 높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었다(Zhan et al., 2009; 허준수 & 유수현, 2002; 이현주 외, 2008).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고령자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신체건강이 우울과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매우 높은 유의도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짐을 확인했다(강

희숙 & 김근조, 2000; 고승덕 외, 2001).

마지막으로 사전 우울점수의 경우 중·고령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전 우울점수가 통제되지 않으면 연구대상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우울수준이 설명에 포함되어 독립변수가 우울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가 측정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분석을 위해 해당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Zhan et al., 2009).

제 3장.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제 1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1) 국내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은퇴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2) 이들의 우울수준 상태를 비교하며, 3) 그 관계를 은퇴전후 자아존중감 변화가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별 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에 따라 우울수준의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가설 1-1. 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완전은퇴자의 우울수준은 더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점진적이은퇴자의 우울수준은 더 높을 것이다.

■ 연구문제 2.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 변화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가설 2-1. 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완전은퇴자의 은퇴 후 자아존중감은 더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점진적이은퇴자의 은퇴 후 자아존중감은 더 낮을 것이다.

■ 연구문제 3. 중·고령자의 은퇴유형 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은퇴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가 매개하는가?

연구가설 3-1. 완전은퇴는 자아존중감 저하를 통해 중·고령자의 우울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2. 점진적이은퇴는 자아존중감 저하를 통해 중·고령자의 우울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2절.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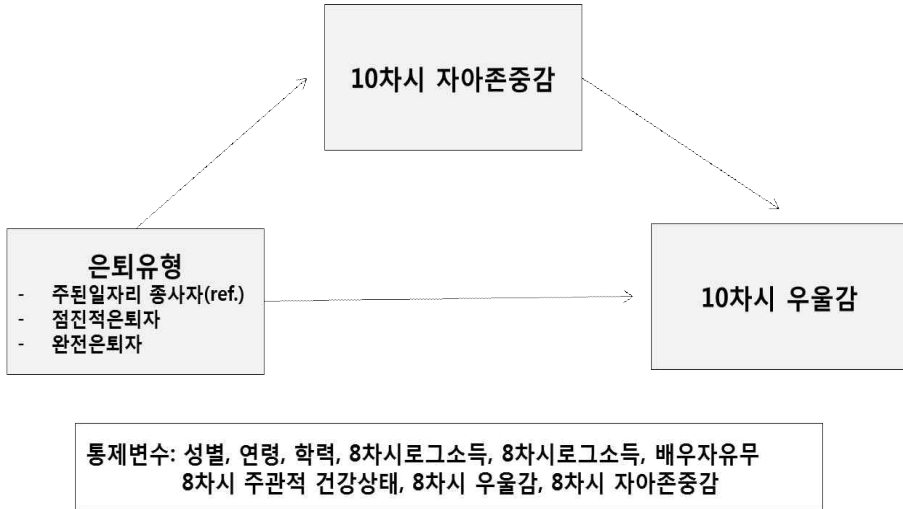


그림 4 개념적 모델

제 4장. 연구방법

제 1절. 분석자료 및 변수의 측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 8차(2013년도), 9차(2014년도), 10차(2015년도) 자료를 사용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제주도를 포함한 9개도에 거주하는 7,072 가구, 14,469명의 가구원이 참여한 전국 대표성을 지닌 패널자료이다. 이후 차시가 진행됨에 따라 그 수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타 조사에 비해 원표본 규모가 크다는 장점을 갖는다. 한국복지패널은 8차시 기준 총 5,271 가구가 유지되었으며, 8차시부터는 표본 크기를 유지하기 위한 신규포본 1,800 가구가 포함되었다. 8차시 기준 최종적으로 7,617 가구가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어서 9차시 조사에서는 기존 원표본의 약 70%인 4,896가구가 포함되었으며 8차시에 신규로 포함된 가구 중 1,693가구가 유지되었다. 마지막 10차시 조사는 2016년 3월 31일자로 공개되어 원표본 5,343 가구 및 신규패널 1,571 가구가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6,914 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우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감은 표준화된 척도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통해 측정됐다.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한 CES-D 척도는 20문항의 원척도를 축약하여 11개의 문항을 활용한다. 이는 리커트식 척도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간 스스로 느낀 우울감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전체 문항은 총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신체적 저하에 대한 2개 문항, 우울정서에 대한 4개 문항, 긍정정서에 대한 4개 문항, 그리고 대안적 실패감에 대한 3개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극히 드물다’에 응답하는 경우 1점, ‘가끔 있었다’의 경우 2점, ‘종종 있었다’에 3점, 마지막으로 ‘대부분 그랬다’에 4점을 부과한다. 분석은 이를 0점부터 3점으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비교적 잘 지냈다’, ‘불만 없이 생활하였다’는 역점수를 부여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별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의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alpha는 0.858로 나타나 우울 증상 척도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변수는 10차시의 자료를 활용한다.

2) 독립변수: 은퇴유형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가 만 50세 이후부터 은퇴과정에 진입할 것이라 판단하여, 8차시 기준 만 50세 이상(1963년생 이전)인 응답자만을 포함한다. 이들 응답자를 대상으로 은퇴유형을 구분하는데, 그 구분법은 아래의 [표1]과 같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분한 것으로, 먼저 모든 응답자들은 8차시 기준 주된일자리

에 근무 중인 이들이다. 이때 주된일자리는 Cahill, Giandrea & Quinn(2006)의 정의에 따라 응답자가 최소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며, 연간 근로시간이 최소 1,600시간 이상인 풀타임 일자리로 상정한 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시 데이터의 임금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시점 및 자영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시점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지속 중인 일자리를 갖는 집단을 일차적으로 추출한다. 이들 집단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풀타임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추출된 8차시 주된일자리 근로자 1,030명 중에서 9, 10차시 사이 비경제활동으로 진입하거나 ‘지난 1년 간 사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집단 중 10차시에도 비경제활동 상태인 이들을 ‘완전은퇴자’로 구분한다. ‘점진적은퇴자’의 경우는 앞서 상정한 주된일자리 종료 후 근로시간 및 직종에 차이를 보이는 가교일자리로 진입한 경우, 혹은 직종을 유지하더라도 더 이상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점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8차시에서 주된일자리 근로자 중 직종의 변화 없이 10차시까지 근속중이며, 사직경험이 없고 풀타임 근로를 지속하는 집단을 ‘주된일자리 종사자’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639명의 ‘주된일자리 종사자’, 292명의 ‘점진적은퇴자’, 99명의 ‘완전은퇴자’로 구분한다. 이때 주된일자리를 유지하는 집단과 은퇴자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준거집단은 ‘주된일자리 종사자’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표 1 은퇴유형 구분표

	8차시	9차시	10차시
주된일자리 종사자 (준거집단 I)	주된일자리 근무	경제활동	경제활동
		* 9, 10차시 사이에 직종이동 없고 풀타임 유지	
점진적은퇴자	주된일자리 근무	비경제활동	경제활동
		경제활동	경제활동
		* 9, 10차시 사이 주된일자리와는 다른 직종으로 이동	
		경제활동	경제활동
		* 9, 10차시 사이에 직종이동 없으나 파트타임 전환	
완전은퇴자	주된일자리 근무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 9차시 기준 사직경험 없음	
		비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주된일자리: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취직 및 사업 시작 시점이 최소 2003년인 집단이며, 연간 1600시간 이상 근무한 풀타임근로자

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한다. 해당 척도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나뉜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2점, ‘그런 편이다’에 3점, 마지막으로 ‘항상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한다. 이때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5개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문항 별 점수를 합산하여 활용한다. 응답의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alpha는 0.685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가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 해당 변수는 10차시의 자료를 활용한다.

4) 통제변수

은퇴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지위 변수, 건강관련 변수를 통제한다. 그리고 8차시 우울점수, 8차시 자아존중감 점수를 사전점수로 보고 연구에 포함시킨다.

먼저 인구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가 있다. 성별은 남성을 0으로, 여성을 1로 가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연령의 경우는 2013년에 조사된 8차시 기준 만 50세 이상인 1963년생 이전 출생자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배우자 유무의 경우, 혼인상태를 묻는 문항에서 '유배우자'라고 응답한 이들을 배우자가 있는 집단으로, 그 외 '사별', '이혼', '별거', '비혼', '기타' 응답자는 배우자가 없다고 보았다. 이 역시 무배우자를 0으로, 유배우자를 1로 가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지위 변수에는 8차시 주된일자리 근무 당시의 경상소득, 심리적 건강을 측정한 10차시의 경상소득, 응답자의 학력이 포함되었다. 이 때 8차시의 경상소득을 포함하는 이유는 기초선의 특성을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들의 기초선 당시 직업에 관한 정보는 분석 모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옥금(2011)의 논의에 따라 과거 직업력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그 당시 소득 관련 변수를 통제변수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경상소득은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에서 오는 이자,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값을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최종 소득변수로 사용한다. 학력, 즉 교육수준은 무학에서 대학원 박사학위까지를 자기보고식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조사 시점인 10차시 기준 학력변수를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나누어 서열변수로 사용한다.

건강변수는 8차시 기준 건강만족도 변수를 사용한다. 종단적 자료

를 활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기초선에 해당하는 8차시 우울점수와 더불어 신체적 건강 변수 역시 8차시의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기초선으로 포함시킨다. 이는 신체적 건강은 심리적 건강과 공생적(Symbiotic)관계에 있다는 점(Zhan et al., 2009)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주관적 건강만족도를 묻는 해당 문항은 ‘매우 불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연속변수로 모델에 포함시킨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의 변화 값을 보기 위해 이전 차시인 8차시의 자아존중감 값을 통제시킨다. 측정 방법은 앞선 매개효과에서의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측정과 같다. 8차시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0.670으로 적합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기초선으로 종속변수의 사전점수로 8차시의 CES-D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켜, 독립변수인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순수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측정은 앞선 종속변수 측정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측정한다. 8차시 CES-D의 Cronbach's alpha는 0.84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2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명	개념 및 측정시점	비고
종속 변수	우울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일주일간의 느낌과 행동에 대한 응답 ▪ 임상적 기준의 우울증 여부가 아니라 우울수준으로만 분석함 ▪ 10차시 자료를 사용하며 연속변수로 활용함 	총점사용/4점 척도
독립 변수	완전 은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에서 8차시(2013년) 당시 주된일자리 종사자 ▪ 그 중 9-10차시(2014년-2015년)를 거치며 주된일자리에서 이탈 후 비경제활동상태인 응답자 	더미변수
	점진적 은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에서 8차시(2013년) 당시 주된일자리 종사자 ▪ 그 중 9-10차시(2014년-2015년)를 거치며 주된일자리에서 이탈 후 적어도 한번 이상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파트타임으로 전환하여 10차시까지 이를 지속중인 응답자 	더미변수
	주된 일자리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에서 8차시(2013년) 당시 주된일자리 종사자 ▪ 9-10차시(2014년-2015년) 내내 8차시의 주된일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근무하는 응답자 	더미변수/준거집단
매개 변수	자아 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시점 기준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 응답 ▪ 10차시 자료를 사용하며 연속변수로 활용함 	총점사용/4점 척도
통제 변수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차시 기준 1963년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함 ▪ 연속변수로 활용 	
	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을 0, 여성을 1로 가변수화하여 사용함 	더미변수

배우자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배우자 0, 유배우자를 1로 가변수화하여 사용함 	더미변수
8차시 & 10차시 경상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이자, 재산소득, 이전소득 왜도 조정을 위해 자연로그 변환함 8, 10차시 소득 모두를 연속변수로 활용함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나누어 사용 응답자의 10차시 기준 최종학력이며 서열변수로 사용함 	단일문항/ 5점 척도
건강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8차시 자료를 사용하며 연속변수로 활용함 	단일문항/ 5점 척도
자아 존중감 사전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개변수와 측정방법 같음 8차시 자료를 사용하며 연속변수로 활용함 	총점사용/ 4점 척도
우울 사전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속변수와 측정방법 같음 8차시 자료를 사용하며 연속변수로 활용함 	총점사용/ 4점 척도

제 2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에 따른 우울수준의 차이, 그리고 여기에 미치는 자아존중감 변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를 활용하였다. 특히 기존의 횡단적 연구설계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의 8-10차시 자료를 사용한다. 또한 최종 모델에 8차시 종속변수 사전점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인과관계 및 선택적 편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연구모델 분석을 위해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사용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을 구분한다. 이를 위해 복지패널 8-10차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8차시 기준으로 주된일 자리에 근로하고 있는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들의 9, 10차시 은퇴 전이를 고려하여 각각 '완전은퇴자', '점진적은퇴자', '주된일자리 종사자'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다. 유형이 확인된 후에는 전체 변수들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응답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핀다.

둘째, 독립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분산팽창인자(VIF) 및 공차한계(TOL)를 확인한다.

셋째, 유형에 따라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건강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종속변수인 우울 그리고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간 그리고 이들 변수의 8차시 총점에 유형 간 평균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x^2 검증 및 One-way ANOVA를 통한 F 검증을 실시한다.

넷째, 은퇴유형과 우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은퇴유형 변수는 '주된일자리 종사자'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더미변수로 변환시켜

사용한다.

다섯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자아존중감 변화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인과적 단계적 근법을 활용한다. 이는 네 가지 전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매개변수를 통제했을 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유의한 영향이 사라지거나 유의하게 감소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다. Sobel Test는 매개효과의 회귀계수를 그 표준오차 값으로 나눈 검증치가 유의한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Sobel, 1982; 이상균, 2007에서 재인용).

[회귀식]

Model1 ($Y = Depression10$):

$$\hat{Y} = a + b_1 Gradual + b_2 Complete + b_3 Female + b_4 Age + b_5 Spouse + b_6 LNincome8 + b_7 LNincome10 + b_8 Education + b_9 Health + b_{10} Esteem8 + b_{11} Depression8$$

Model2 ($M = Esteem10$):

$$\hat{M} = a + b_1 Gradual + b_2 Complete + b_3 Female + b_4 Age + b_5 Spouse + b_6 LNincome8 + b_7 LNincome10 + b_8 Education + b_9 Health + b_{10} Esteem8 + b_{11} Depression8$$

Model3 ($Y = Depression10, M = Esteem10$):

$$\hat{Y} = a + b_1 Gradual + b_2 Complete + b_3 Female + b_4 Age + b_5 Spouse + b_6 LNincome8 + b_7 LNincome10 + b_8 Education + b_9 Health + b_{10} Esteem8 + b_{11} Depression8 + b_{12} M$$

제 5장. 연구결과

제 1절. 기초통계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갖는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3]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변수들의 기초통계 결과를 살펴본다. 성별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중 남성이 772명(75.0%), 여성이 258명(25.0%)씩 표집 되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했을 때 2016년 기준 만 50세 이상 중·고령근로자의 성별분포(남성=58.3%, 여성=41.7%)에 비해 남성이 과대표집 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⁰⁾. 또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만 50세 이상의 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64세로 나타났다. 이어서 배우자 유무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855명으로, 전체의 83.0%를 차지하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175명으로 이는 약 17.0%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기초통계 값을 살펴본다. 먼저 8차시, 즉 주된일자리를 근무하고 있는 시기의 연간 경상소득과 10차시, 즉 직업이동 후 심리적 건강상태를 측정할 시기의 연간 경상소득 값이다. 8차시 기준 연간 경상소득은 약 5,024만원 수준이었다. 또한

10) 이러한 결과는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활용한 윤지은&전혜정(2009)의 취업자 성별분포(남성=68.8%, 여성=31.2%), 전혜정&김명용(2014)의 취업자 성별분포(남성=64.7%, 여성=35.3%)와는 그 차이가 비교적 줄었으나, 여전히 남성이 과대표집 되어 있음은 명시할 필요가 있다.

소득 변수의 정규성 확보를 위해 자연로그를 취한 결과, 8차시 경상 소득 값은 8.220, 10차시 경상소득 값은 8.179였다. 학력의 경우는 다섯 가지 단위로 구분된 서열변수로 활용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무학'의 경우 117명으로 전체 11.4%를 차지했으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초등학교 졸업'에 응답한 이들은 총 280명, 27.2%에 해당되었다. '중학교 졸업'은 177명으로 17.2%, '고등학교 졸업'은 316명으로 30.7%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 '전문대학 졸업 이상'에는 박사 졸업까지를 포함하는데, 이는 140명, 13.6%로 나타났다. 학력 평균은 약 2.08로서, 본 연구 대상자는 평균적으로 중학교 졸업 전후에 위치하였다.

건강변수는 1점에 해당하는 '매우 불만족'부터 5점에 해당하는 '매우 만족'까지, 전체 5점 리커트의 연속변수로 활용되었다. 8차시 기준 평균 점수는 약 3.216점으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 전후로 건강 만족도를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은퇴유형은 8차시 기준 주된일자리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9, 10차시 직업이동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주된일자리 종사자'의 경우는 639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62.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점진적은퇴자는 292명으로 전체 28.3%에 해당됐고, 마지막 완전은퇴자는 99명으로 전체 대비 9.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분되어 활용되진 않았으나 점진적은퇴자 내에서는 직종이 다른 가교일자리로 진입한 경우가 38명으로 응답자 전체의 3.7%를 차지하였고, 임금근로자 중 직종 변화 없이 파트타임으로 전환한 경우가 38명으로 3.7%,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중 직종 변화 없이 파트타임으로 전환한 경우가 216명으로 전체 대비 21.0%에 해당되었다.

표 3 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N=1030)

변수명	빈도	비율(%)	Mean	S.D.	
성별	남성	772	75.0		
	여성	258	25.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175	17.0		
	배우자 있음	855	83.0		
학력	무학	117	11.4	2.080	1.254
	초등학교 졸업	280	27.2		
	중학교 졸업	177	17.2		
	고등학교 졸업	316	30.7		
	전문대학 졸업 이상	140	13.6		
건강 만족도	매우 불만족	40	3.9	3.216	.937
	대체로 만족	223	21.7		
	그저 그렇다	264	25.6		
	대체로 만족	481	46.7		
	매우 만족	22	2.1		
은퇴유형	주된일자리 종사자	639	62.0		
	점진적은퇴자	292	28.3		
	완전은퇴자	99	9.6		
변수명	Mean		S.D.		
연령	63.653		9.229		
경상소득(8차시)	5024.210		4377.211		
로그경상소득(8차시)	8.220		.788		
경상소득(10차시)	5105.421		5913.719		
로그경상소득(10차시)	8.179		.849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토

앞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이어,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알아보고 변수별 정규성 검증을 실시한다.

먼저 주요변수 기술통계 결과는 [표4]와 같다. 종속변수로 사용한 10차시 우울감 총점의 평균은 2.829점으로 나타났고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0점, 25점으로 나타났다. 사전점수로 둔 8차시 우울감 총점의 평균은 2.901점이며,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0점과 27점이다. 점수들의 평균과 최솟값 및 최댓값을 살펴본 결과 점수 간 격차가 클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Radloff(1977)의 계산에 따라 임상적 우울증 여부를 판단¹¹⁾한다면, 8차시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9.3%가 우울증이 의심되며, 10차시의 경우는 8.9%가 해당된다.

매개변수의 경우, 먼저 응답자들이 주된일자리에 종사하는 시점인 8차시 자아존중감은 31.241점이었고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17점과 40점이다. 이들의 직업이동 후 10차시에 측정된 자아존중감은 30.923점으로 이전 차시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고,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18점과 40점이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회귀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Normality)을 확보하는지 살펴본다. 변수의 분포는 왜도(Skewness)가 절댓값 3미만을 가져야 하며, 첨도(Kurtosis)의 경우 절댓값 10미만일 때 정규분포와 흡사하다고 본다(Kline, 2015). [표4]의 마지막 두 열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종속변수인 10차시 우울총점은 왜도 2.068, 첨도 4.829으로

11) Radloff(1977)은 임상적 우울증 판단기준을 16점으로 설정하였다. 한국 복지패널은 CES-D 원척도를 축약한 CES-D11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데이터에서 추출한 우울증상 총점에 20/11을 곱하여 총점을 재측정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6점 보다 낮은 점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우울증 여부를 판단하였다.

드러났으며, 사전점수로 포함된 8차시 우울총점의 경우는 왜도 2.190, 첨도 6.121이다. 앞서 살펴본 두 변수의 최댓값 최솟값, 그리고 평균값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점수 간 격차가 클 것으로 가정했다. 실제로 두 변수 모두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왜도와 첨도 절댓값을 갖지만, 정규성 가정을 위배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매개변수인 10차시 자아존중감 총점이 갖는 분포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0.235, 0.470으로 나타나서 정규성을 보였으며, 그 사전점수로 통제된 8차시 자아존중감 총점은 -0.520, 0.585였고 마찬가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통제변수이지만 연속변수로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연령, 10차시 경상소득, 8차시 경상소득, 학력, 건강만족도 역시 정규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령의 최솟값은 51세였으며, 최대 92세까지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연령분포의 왜도는 0.396, 첨도는 -1.033으로 역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는 경상소득 값이다. 8차시 경상소득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2.980, 16.720으로 정규성 가정이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0차시 경상소득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8.051, 110.159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정규성 가정이 위반되었다. 따라서 이들 점수는 자연로그 변환을 하여 정규성 문제를 보완한다. 자연로그를 취한 후의 8차시 경상소득의 왜도와 첨도는 -0.048, -0.369, 10차시 경상소득의 경우는 -0.121, 0.660으로 두 변수 모두 정규성 준거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학력과 건강만족도 변수이다. 학력 변수의 경우 왜도와 첨도가 각각 -0.082, -1.150, 건강 변수는 -0.569, -0.658로 두 변수 모두 정규성이 충족되었다.

표 4 주요변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토

구분	변수명	Mean	S.D.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종속변수	10차시 우울감 총점	2.829	3.984	.00	25.00	2.068	4.829
	10차시 자존감 총점	30.923	3.298	18.00	40.00	-.235	.470
통제변수	8차시 우울감 총점	2.901	4.011	.00	27.00	2.190	6.121
	8차시 자존감 총점	31.241	3.524	17.00	40.00	-.520	.585
	연령	63.653	9.229	51.00	92.00	.396	-1.033
	경상소득 (8차시)	5024.210	4377.211	405.00	44363.00	2.980	16.720
	로그 경상소득 (8차시)	8.220	.788	6.00	10.70	-.048	-.369
	경상소득 (10차시)	5105.421	5913.719	29.00	100810.00	8.015	110.159
	로그 경상소득 (10차시)	8.179	.849	3.37	11.52	-.121	.660
	학력	2.080	1.254	.00	4.00	-.082	-1.150
	건강 만족도	3.216	.938	1.00	5.00	-.569	-.658

3.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검증

다음으로는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¹²⁾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각 변수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Pearson 단순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단순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표6]에 정리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된다고 보는 기준은 절댓값 0.8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Gujarati & Porter, 2009).

첫째, 독립변수인 은퇴유형과 종속변수인 10차시 우울감 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된일자리 종사자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점진적은퇴와 10차시 우울감 총점의 상관계수는 0.038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반면 완전은퇴의 경우는 상관계수가 0.181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점진적은퇴자의 10차시 우울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지만, 완전은퇴자의 경우에는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10차시 우울감과 관련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독립변수인 은퇴유형과 매개변수인 10차시 자아존중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된일자리 종사자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점진적은퇴와 10차시 자아존중감 사이의 상관계수는 -0.110으로 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반면 완전은퇴와 10

12) 다중공선성이란 두 개 이상 설명변수 사이에 큰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김태근, 2006). 성격이 비슷한 설명변수들이 연구모델에 동시에 포함된다면 종속변수를 부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Limit), 및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일정 수준 이하의 값을 확인해야 한다.

차시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계수는 -0.170 으로 역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앞서 종속변수와의 상관과는 다르게 주된일자리 종사자 대비 점진적은퇴자의 10차시 우울감 정도는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보였다. 완전은퇴자의 경우에도 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더 낮은 자아존중감 값과 관련되는 부적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매개변수인 10차시 자아존중감과 종속변수인 10차시 우울감 간의 상관계수는 -0.440 이었고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두 변수 간의 부적관계임을 의미하며, 즉 10차시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10차시 우울감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넷째, 통제변수들과 독립변수인 은퇴유형 및 종속변수인 10차시 우울감, 매개변수인 10차시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점진적은퇴에는 성별을 제외한 통제변수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완전은퇴에는 모든 통제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10차시 우울감과 10차시 자아존중감 역시 모든 통제변수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특히 사전점수로서 연구모델에서는 통제변수로 포함된 8차시 우울감과 8차시 자아존중감 모두 완전은퇴, 점진적은퇴, 10차시 우울감, 10차시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표 전체를 두고 다중공선성 위험성을 검토한 바, 8차시 로그경상소득과 10차시 로그경상소득 사이의 상관계수 값이 0.841 로 두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변수 중 하나의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다. 어떤 변수를 제거한다는 것은 변수가 갖는 정보가 훼손된다는 의미이지만, 앞선 두 소득 변수 간에는 이미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남아있는 변수가 제거된 변수의 정보를 최대한 내포하는 것이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태근, 2006). 이에 최종적인 회귀모델에서는 10차시 로그경상소득 값을 통제변수에서 제외한다.

이어서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 값을 통해서도 다중공선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인자 값이 2.5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며(김태근, 2006), 이 값의 역수인 공차한계 값은 0.4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의 공차한계 값과 분산팽창인자 값은 [표5]와 같다. 분산팽창인자 값의 범위는 1.146부터 2.324까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그경상소득 8차시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고 있지만, 기준이 되는 2.5 보다는 적은 값이므로 다중공선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공차한계 역시 0.430에서 0.872까지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 기준을 넘지 않았다.

표 5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토

변수명	공차한계(TOL)	분산팽창인자(VIF)
10차시 자아존중감 총점	.808	1.237
8차시 자아존중감 총점	.729	1.372
8차시 우울감 총점	.709	1.410
점진적은퇴자	.852	1.173
완전은퇴자	.872	1.146
성별	.757	1.321
연령	.508	1.968
배우자유무	.741	1.350
학력	.527	1.896
LN 경상소득 (8차)	.430	2.324
건강만족도	.783	1.277

참고: 독립변수에 대한 준거집단은 '주된일자리 종사자'

표 6 변수 간 상관관계

	점진적 은퇴자	완전 은퇴자	8차시 우울총점	10차시 우울총점	8차시 자존감	10차시 자존감	연령	성별 (여=1)	배우자 (유=1)	건강 만족도	학력	8차시 경상소득 (LN)	10차시 경상소득 (LN)
점진적 은퇴자	1												
완전 은퇴자	-.205**	1											
8차시 우울총점	.076*	.094**	1										
10차시 우울총점	.038	.181**	.266**	1									
8차시 자존감	-.077*	-.075*	-.439**	-.194**	1								
10차시 자존감	-.110**	-.170**	-.216**	-.440**	.302**	1							
연령	.260**	.172**	.263**	.244**	-.207**	-.261**	1						
성별 (남=0)	-.016	.108**	.179**	.165**	-.089**	-.099**	.006	1					
배우자 (무=0)	-.077*	-.081**	-.238**	-.215**	.140**	.157**	-.144**	-.443**	1				
건강 만족도	-.092**	-.121**	-.355**	-.237**	.294**	.202**	-.315**	-.140**	.112**	1			
학력	-.212**	-.094**	-.261**	-.260**	.272**	.308**	-.558**	-.207**	.247**	.294**	1		
8차시 경상소득 (LN)	-.240**	-.123**	-.336**	-.302**	.337**	.358**	-.635**	-.148**	.285**	.342**	.635**	1	
10차시 경상소득 (LN)	-.278**	-.177**	-.296**	-.326**	.318**	.384**	-.636**	-.159**	.313**	.320**	.604**	.841**	1

* p<.05 ** p<.01

4. 은퇴유형별 평균비교

본 연구에서 주된 설명변수로 사용된 은퇴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 값이 어떻게 다른지 평균비교를 실시한다. 평균비교를 위해 비연속변수로 측정된 성별, 배우자유무에서 은퇴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빈도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χ^2 검증을 실시한다. 한편 연속변수에 해당되는 연령, 8차시 로그경상소득, 10차시 로그경상소득, 학력, 건강만족도, 8차시 자아존중감 총점, 8차시 우울감 총점, 10차시 자아존중감 총점, 10차시 우울감 총점의 경우는 각 은퇴유형 별로 유의미한 평균값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다.

먼저 χ^2 검증 결과 성별과 배우자 유무 모두 통계적 기대빈도와 실제 관측빈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성별의 경우 주된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은 남성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점진적은퇴자 집단에서는 여성의 경우 기대빈도보다 관측빈도가 적었으나, 완전은퇴자 집단에서는 기대빈도보다 관측빈도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집단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유무의 경우에도 집단 간에 유의미하게 다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연속변수에 대한 One-way ANOVA 결과를 살펴본다. 이들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F 검증을 통해 파악한다. Tukey의 사후검증 결과 모든 변수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연령의 경우에는 완전은퇴자와 점진적은퇴자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 집단의 연령은 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소득에 있어서는 주된일자리 근무를 하고 있던 8차시, 그리고 직업 이동 후의 10차시 경상소득 모두에서 주된일자리 종사자 집단이 점진적은퇴자와 완전은퇴자 집단에

비해 높은 값을 가졌다. 학력과 건강만족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된일자리 종사자가 나머지 두 집단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사전점으로 포함된 8차시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모두 은퇴유형 별로 그 정도가 다르게 보고되었는데, 자아존중감 값은 주된일자리 종사자 대비 완전은퇴자와 점진적은퇴자에서 낮았다. 동일 집단군은 이와 같이 나뉘는 한편,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점진적은퇴자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아 점진적 은퇴자가 교집합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각각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로 사용된 10차시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집단이 나뉘는 확인할 수 있다. Tukey의 사후검증 결과 자아존중감은 주된일자리 종사자, 점진적은퇴자, 완전은퇴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우울감에 대해서는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점진적은퇴자 간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완전은퇴자에서는 더 높은 값이 보고되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다음의 [표7]에 정리하였다.

표 7 은퇴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 관측빈도(기대빈도) 및 평균(S.D.) 비교

		주된 일자리 종사자	점진적 은퇴자	완전 은퇴자	Significance
성별	남성	490 (478.9)	222 (218.9)	60 (74.2)	$x^2=12.051$ **
	여성	149 (160.1)	70 (73.1)	39 (24.8)	
배우자 유무	없음	86 (108.6)	63 (49.6)	26 (16.8)	$x^2=16.039$ ***
	있음	553 (530.4)	229 (242.4)	73 (82.2)	
연령		61.161 (8.404)	67.462 (8.965)	68.505 (9.400)	$F=70.167$ ***
8차시 경상소득 (LN)		8.404 (.755)	73.919 (.696)	7.923 (.891)	$F=50.041$ ***
10차시 경상소득 (LN)		8.421 (.802)	7.802 (.726)	7.720 (.894)	$F=79.260$ ***
학력		2.329 (1.183)	1.658 (1.218)	1.717 (1.385)	$F=35.522$ ***
건강만족도		3.332 (.896)	3.079 (.947)	2.869 (1.037)	$F=15.207$ ***
8차시 자아존중감 총점		31.562 (3.388)	30.812 (3.555)	30.434 (4.031)	$F=7.503$ **
8차시 우울감 총점		2.499 (3.780)	3.387 (3.824)	4.061 (5.417)	$F=9.648$ ***
10차시 자아존중감 총점		31.454 (3.218)	30.346 (2.945)	29.202 (3.864)	$F=27.590$ ***
10차시 우울감 총점		2.377 (3.611)	3.069 (3.870)	5.040 (5.558)	$F=20.644$ ***

a= 주된일자리종사자 b= 점진적은퇴자 c= 완전은퇴자

* p<.05 ** p<.01 *** p<.001

제 2절.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의 기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Baron & Kenny(1986)의 인과적 단계 회귀모형 결과는 [표8]에 제시된 바와 같다. F 검증을 통해 세 가지 회귀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델임이 확인되었다. 모델 1에서는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건강변수, 사전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은퇴유형 각각이 종속변수인 10차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모델 2에서는 모델 1과 같은 통제변수들을 둔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은퇴유형이 매개변수인 10차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서 결과변수였던 10차시 자아존중감을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후, 은퇴유형 각각이 10차시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지 검증하였다.

1. 은퇴유형과 우울의 관계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에 따라 우울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가?’이다. 이를 확인하고자 10차시 우울감 변수를 종속변수로, 은퇴유형을 독립변수로 두고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건강변수, 사전점수를 통제한 모델 1을 설정하였다.

먼저, 모델 1의 설명력과 모형적합도 결과는 [표8]의 마지막 두 개 행에 정리된 바와 같이, 수정결정계수(*adjusted R²*)와 F 값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모델 1의 경우 수정결정계수는 0.158로, 본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인 10차시 우울감 변량의 약 15.8%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 유의도를 살펴보기 위한 F 검증 값은 20.264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변수들의 회귀계수를 통해서는 다른 독립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특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표8]의 모델 1을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배우자가 없거나, 8차시 로그경상소득이 낮을수록, 건강 만족도가 낮을수록, 사전점수인 8차시 우울감이 높을수록 10차시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문제1에 포함된 주요 독립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점진적은퇴자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완전은퇴자의 경우 $p < .001$ 에서 회귀계수의 유의도가 증명되었다. 이때 완전은퇴자 변수의 회귀계수는 1.542로, 이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완전은퇴자가 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10차시 기준 평균적으로 1.542점 높은 우울감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완전은퇴자의 우울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첫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으며, 두 번째 연구가설인 ‘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점진적은퇴자의 우울수준은 더 높을 것이다.’는 본 연구모형을 통해 기각되었다.

이때 유의한 값으로 확인된 완전은퇴자 변수가 10차시 우울감을 설명하는 회귀계수 값은 이어서 설명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그림4]의 연구모형에서 총효과(Total Effect)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해석은 매개효과 부분에서 다룬다.

2. 은퇴와 은퇴 후 자아존중감 변화의 관계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중·고령자의 은퇴는 자아존중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확인하고자 10차시 자아존중감 변수를 종속변수로, 은퇴유형을 독립변수로 두고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건강변수를 통제한 모델 2를 설정하였다. 이때 자아존중감

8차시의 점수를 사전점수로 통제함으로써 변화 값을 파악하고자 한다 (Allison, 1994). 그 분석 결과는 마찬가지로 [표8]과 같다.

모델 2의 수정결정계수는 0.184로, 결국 본 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10차시 자아존중감 변량의 18.4% 정도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의도를 살펴보기 위한 F 검증 값은 24.199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변수들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학력이 높을수록, 8차시 로그경상소득이 높을수록, 8차시 자아존중감 값이 높을수록 직업이동 후인 10차시 자아존중감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연구문제 2에 포함된 주요 독립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앞선 모델 1과 마찬가지로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점진적은퇴자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완전은퇴자의 경우 $p < .001$ 에서 회귀계수의 유의도가 증명되었다. 이는 8차시, 즉 주된일자리에 종사할 당시의 자아존중감 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완전은퇴자들은 주된일자리 종사자들에 비해 은퇴 후 1.432점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완전은퇴자의 은퇴 후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하게 낮을 것이다’라는 첫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된 반면, 두 번째 연구가설인 ‘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점진적은퇴자의 은퇴 후 자아존중감은 더 낮을 것이다.’는 본 연구모형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3. 자아존중감 변화의 매개효과

세 번째 연구문제는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은퇴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가 매개하는가?’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 모델 1에서 포함한 독립변수, 통제변수, 그리고 자아존중감 변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10차시 자아존중감 변수 및 그 사전점

수 값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3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회귀모형을 설정하는 것은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인과적 단계 분석에 맞추어, 주요 독립변수인 은퇴유형의 유의도가 매개변수를 포함한 후에 사라지거나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때 유의도가 사라진다면 매개변수가 완전매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독립변수의 유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면 이는 부분매개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8]에 정리된 바와 같다.

모델 3의 수정결정계수는 0.256으로, 결국 본 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10차시 우울감 변량의 25.6% 정도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의도를 살펴보기 위한 *F*검증 값은 33.166으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변수들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건강만족도가 낮을수록, 8차시 우울감이 높을수록 직업이동 후인 10차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우울감을 보고했다.

주요 독립변수인 은퇴유형 변수는 앞선 모델 1, 모델 2와 마찬가지로 완전은퇴인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결국 10차시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되는 우울 사전점수 및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 변수들이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완전은퇴자인 경우 10차시 우울감이 평균 0.939점 더 높았다. 해당 회귀계수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었다. 반면 점진적은퇴자는 모델 3에서도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우울수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산출된 회귀계수를 바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앞서 살펴본 모델 3의 주요 독립변수인 은퇴유형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완전은퇴였다($p < .05$). 해당 변수의 모델 3 계수 값은 0.939로, 이는 [그림4]의 직접효과에 해당한다. Baron & Kenny(1986)의 검증법에 따라 이 계수 값을 모델 1의 계수 값, 즉

앞서 살펴본 총효과 값인 1.542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때 총효과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본 연구 모델의 경우 모델 1(총효과)에 비해 모델 3(직접효과)의 계수 값이 절댓값 0.603만큼 차이가 났으며, 통계적 유의도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자아존중감은 은퇴유형 중에서도 완전은퇴와 은퇴 후 우울감의 관계에서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매개효과의 회귀계수는 모델 2를 통해 산출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의 회귀계수 값과 모델 3에서 산출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회귀계수 값을 곱한 것이 된다. 즉 본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의 회귀계수는 0.603으로 계산된다. 이는 아래 [그림4]에서 10차시 우울감에 대한 완전은퇴의 총효과인 1.542에서 직접효과 0.939를 뺀 0.603과 동일한 값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다. 매개모형 유의도 검증 결과는 [표9]에 제시되어 있다. 검증결과, 완전은퇴의 경우 얻어진 통계 값은 4.025로 이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점진적은퇴의 경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Baron & Kenny(1986)의 인과적 단계 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써 마지막 연구문제 3의 첫 번째 연구가설 ‘완전은퇴는 자아존중감 저하를 통해 중·고령자의 우울수준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된 반면, 두 번째 연구가설 ‘점진적은퇴는 자아존중감 저하를 통해 중·고령자의 우울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8 Baron & Kenny(1986) 인과적 단계 회귀모형 분석결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은퇴유형 ⇨ 우울			은퇴유형 ⇨ 자아존중감			은퇴유형, 자아존중감 ⇨ 우울			
	B(SE)	β	t	B(SE)	β	t	B(SE)	β	t	
상수	9.051 (2.560)		3.535 ***	18.591 (2.086)		8.914 ***	16.872 (2.499)		6.753 ***	
통 제 변 수	성별 (여=1)	.438 (.302)	.048	1.450	-.011 (.246)	-.001	-.044	.434 (.284)	.047	1.526
	연령	.020 (.017)	.047	1.172	5.36E- 05 (.014)	.000	.004	.020 (.016)	.047	1.249
	배우자 유무 (유=1)	-.968 (.352)	-.091	-2.747 **	.291 (.287)	.033	1.015	-.846 (.331)	-.080	-2.552 *
	학력	-.186 (.125)	-.059	-1.490	.262 (.102)	.100	2.582 *	-.076 (.118)	-.024	-.642
	8차시 LN 소득	-.570 (.218)	-.113	-2.608 **	.757 (.178)	.181	4.251 ***	-.251 (.207)	-.050	-1.214
	건강 만족도	-.371 (.137)	-.087	-2.697 **	.101 (.112)	.029	.903	-.328 (.129)	-.077	-2.539 *
	8차시 자존감 총점	-.032 (.037)	-.029	-.864	.169 (.030)	.181	5.557 ***	.039 (.036)	.034	1.091
	8차시 우울 총점	.117 (.034)	.118	3.459 **	-.012 (.027)	-.015	-.454	.111 (.032)	.112	3.514 ***
독 립 변 수	점진적 은퇴자	-.141 (.273)	-.016	-.515	-.378 (.223)	-.052	-1.697	-.300 (.257)	-.034	-1.165
	완전 은퇴자	1.542 (.410)	.114	3.759 ***	-1.432 (.334)	-.128	-4.285 ***	.939 (.389)	.070	2.415 *
매 개 변 수	10차시 자존감 총점						-.421 (.036)	-.348	-11.638 ***	
R^2	.166			.192			.264			
adj. R^2	.158			.184			.256			
F	20.264***			24.199***			33.166***			

* p<.05 ** p<.01 *** p<.001

D.V: 10차시 우울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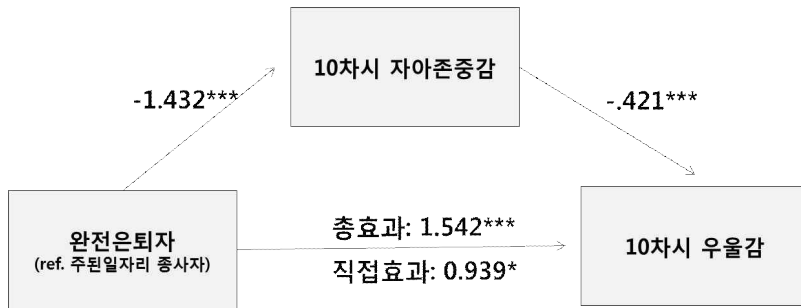


그림 5 완전은퇴-우울 매개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표 9 매개모형 유의도 검증

변수			독립 ⇨ 매개		매개 ⇨ 종속		Sobel Test Statistics (Z)
독립	매개	종속	B	S.E.	B	S.E.	
완전은퇴자	10차시 자아존중감 총점	10차시 우울감 총점	-1.432	.334	-.421	.036	4.025***

* p<.05 ** p<.01 *** p<.001

제 6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반면 은퇴 연령은 빨라지면서 한국 중·고령자들의 은퇴 후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김지경, 2005). 실제로 이러한 은퇴가 한국 사회에 큰 도전으로 다가오며 은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은퇴는 중·고령자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전환기적 사건이자 긴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퇴가 개인의 건강이나 심리, 혹은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은퇴를 이분법적으로 개념화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Bossé et al., 1987; Kim & Moen, 2000; Christ et al., 2007; 김효정 외, 2008; 안지선 & 전해정, 2012). 실제 은퇴유형에 대한 연구결과 국내 외의 중·고령자들은 오랜 시간 기여했던 주된일자리를 종료한 시점 이후로도 완전히 노동시장을 이탈하기 전까지 다양한 직업적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은퇴자를 선행연구에서는 ‘점진적은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진적은퇴자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주된일자리 종료 후 심리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간과했던 은퇴가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그 관계를 가교하는 내적 자원의 존재까지 파악하고자 Pearlin et al.(1981)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개념적 모형으로서 활용한다. 본 연구에는 자신의 자아개념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주된일자리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자아개념에의 혼란을 초래하여 은퇴자의 삶의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때 은퇴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한다면, 주된일자리를 갑작

스럽게 종료하는 것보다 가교일자리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옵션을 통해 보다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경우 자아개념의 위기를 덜 겪게 되며, 상대적으로 적응적인 은퇴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된일자리 은퇴를 스트레스로 상정하여, 이를 겪는 은퇴자들은 자아개념, 그 중에서도 자아존중감의 악화를 겪게 되고, 이는 우울이라는 스트레스 반응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점진적은퇴자는 똑같이 주된일자리에서 은퇴했다라도 완전은퇴자 보다는 자아존중감 수준을 비교적 높게 유지시킬 수 있으며, 보다 긍정적인 심리적 건강상태를 보고할 수 있다고 보아, 앞서 논의한 스트레스 과정을 유형 별로 나누어 그 관계들을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8차시(2013), 9차시(2014), 10차시(2015) 자료를 종단적으로 활용하였다. 종단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은퇴 연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건강한 근로자 효과’의 선택적 편향의 문제를 가급적 배제시키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종단자료를 통해서는 은퇴 후 자아존중감 혹은 우울감의 변화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 해석에 보다 유리하다. 연구 대상은 기초선으로 설정한 8차시에 주된일자리에 종사하는 만 50세 이상의 응답자들의 9차시, 10차시 직업이동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추출된 1,030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은 Baron & Kenny(1986)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제안한 인과적 단계접근법을 활용하여 3단계에 걸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매개효과 유의성 판단은 Sobel Test를 통해 이루어졌다.

아래의 [표10]에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의 지지 혹은 기각여부를 정리하였다.

표 10 연구가설 지지 및 기각여부

<p>■ 연구문제 1.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에 따라 우울수준의 차이를 보이는가?</p>	
<p>연구가설 1-1. 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완전은퇴자의 우울수준은 더 높을 것이다.</p>	<p>지지</p>
<p>연구가설 1-2. 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점진적은퇴자의 우울수준은 더 높을 것이다.</p>	<p>기각</p>
<p>■ 연구문제 2.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 변화에 차이를 보이는가?</p>	
<p>연구가설 2-1. 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완전은퇴자의 은퇴 후 자아존중감은 더 낮을 것이다.</p>	<p>지지</p>
<p>연구가설 2-2. 주된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점진적은퇴자의 은퇴 후 자아존중감은 더 낮을 것이다.</p>	<p>기각</p>
<p>■ 연구문제 3. 중·고령자의 은퇴유형 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은퇴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가 매개하는가?</p>	
<p>연구가설 3-1. 완전은퇴는 자아존중감 저하를 통해 중·고령자의 우울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p>	<p>지지</p>
<p>연구가설 3-2. 점진적은퇴는 자아존중감 저하를 통해 중·고령자의 우울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p>	<p>기각</p>

제 2절.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바탕으로 은퇴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주된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역할상실이며, 결국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역할이론의 맥락(Streib & Schneider, 1971; Blau, 1973; Hooker, 1991; Newman et al., 2012)을 바탕으로 은퇴를 스트레스원으로 상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은퇴가 단일 사건이 아닌 역동적 과정임을 가정하고 점진적은퇴자의 경험을 함께 고찰했다. 이들 집단의 경험은 은퇴자들이 은퇴 전부터 가치를 두었던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삶의 구조나 관계들을 비교적 전과 같이 유지할 수 있다고 본 지속이론의 맥락을 바탕으로 한다(Atchley, 1989). 또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는 스트레스원과 반응 사이의 관계를 넘어 이를 가교하는 내적 자원의 역할을 강조한다(Pearlin et al., 1981). 특히 주된일자리가 자아개념과 관련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주된일자리를 종료하는 경험은 자아개념의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높은 수준의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개념들 중에서도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스트레스원과 반응 사이의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은퇴유형에 따라 은퇴 후 우울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했으며, 이후에는 종속변수를 변경하여 은퇴유형 별 자아존중감은 어떤 양상을 띠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은퇴유형과 자아존중감 모두를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형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모든 모형에는 공통적으로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이전 차시 건강 변수, 그리고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의 사전점수가 통제되었다. 이와 같은 단계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은퇴유형과 우울수준에 대한 결과이다. 주된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중·고령자에 비해 이를 종료한 집단에서 은퇴 후 더 높은 우울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주된일자리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2년 사이에 사직하고 계속해서 은퇴상태인 완전은퇴자의 경우는 주된일자리 근무 당시의 우울수준, 건강수준 등을 통제하고도 심리적 건강이 더 좋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자들에서 더 높은 심리적 증상을 보고된다는 선행연구들과(Bossé et al., 1987; Dave et al., 2008; 안지선 & 전해정, 2012; 한경혜 & 손정연, 2012)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완전은퇴자와 마찬가지로 주된일자리에서 근무하다가 사직을 경험했더라도, 이후 새로운 직종의 일을 시작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점진적은퇴자 집단은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우울수준이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Wang(2007)의 연구에서 가교일자리를 가진 은퇴자들은 주된일자리 은퇴 후에도 심리적 안녕감이 변하지 않았다는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에서 나아가, 연구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가적으로 준거집단을 완전은퇴자 집단으로 변경하여 은퇴자 집단 간의 비교를 시행하였다. 앞서 논의한 연구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실제로 완전은퇴자의 우울수준과 비교했을 때 점진적은퇴자의 은퇴 후 우울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가교일자리에 참여하는 은퇴자들이 완전은퇴자에 비해 더 좋은 심리 및 건강 상태를 보였다는 선행연구(Zhan et al., 2009; 한경혜 & 손정연, 2009)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은퇴자의 심리적 건강 및 적응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부 혼재된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은퇴자들이 더 좋은 심리적 건강상태를 보였다는 국외의 일부 연구들(Midanik et al., 1995; Mein et al., 2003)과는 반대되는 결과였다. 또한 Christ

et al.(2007)은 건강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은퇴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이에 은퇴라는 사건에 선행한 은퇴자와 비은퇴자 간의 건강수준 차이가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은퇴 자체로서는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 보았다. 한편, 점진적은퇴와 관련해서는 Dave et al.(2008)의 연구결과, 가교일자리 진입자의 경우 건강에의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보고했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찾아볼 수 있으나, 심리적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완전은퇴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완전히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 보다는 대체적으로 기존의 일자리든 새로운 일자리든 직업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더 적응적이라고 보았다(Bossé et al., 1987; Kim & Moen, 2000; Wang, 2007; Dave et al., 2008; Jang et al., 2009; Zhan et al., 2009; 김효정 외, 2008; 안지선 & 전해정, 2012; 이아영, 2012; 한경혜 & 손정연, 2012). 따라서 연구결과의 차이는 국가별 상이한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상, 직장은 수입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정신적, 사회적, 생리적 욕구 충족을 시키는 주된 역할로 기능한다(장인협, 최성재, 1987).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고령자들은 은퇴 후 경제적 혹은 심리사회적 차원에서의 충분한 대비가 어려우며, 때문에 은퇴과정 속에서 더 많은 심리적 불안과 혼동을 느낄 수 있다(지연경 & 조병은, 1991). 결국 은퇴가 스트레스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은퇴를 겪는 국내 중·고령자들에게 직업역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자체로는 은퇴로의 전이가 어떤 기제에 의해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은퇴가 역할상실로서 정의되어 개인에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면, 이러한 역할상실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은퇴자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정직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정의한 내적 자원의 매개역할을 바탕으로 스트레스원과 반응 사이의 심리적 기제를 규명하고자 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은퇴 경험은 중·고령자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이는 은퇴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주된일자리 종사자들에 비해 이를 완전히 종료한 집단에서 은퇴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은퇴 혹은 실직으로의 전이한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직업을 유지한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선행연구(송지은 & Marks, 2007; 정은석 & 강상경, 2015)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점진적은퇴자 집단의 경우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아존중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점진적은퇴자가 완전은퇴자에 비해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일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겠다. 연구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준거집단을 변경하여 은퇴자 집단 간 비교한 결과, 실제로 점진적은퇴자의 은퇴 후 자아존중감이 완전은퇴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추적조사를 통해 고령자의 재취업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유의하게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여주었다는 선행연구결과(이지현 외, 2008; 황미구 & 김은주, 2008)의 연구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이어서 앞서 살펴본 은퇴를 겪은 중·고령자의 자아존중감 변화가 궁극적으로 심리적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러한 관계는 은퇴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완전은퇴 경험은 우울에 직접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 저하를 거쳐

간접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한편,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비교한 점진적은퇴자 집단에서는 이러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그 경로를 살펴보면, 주된일자리에서의 직업역할을 완전히 상실한 완전은퇴자들은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겪고 이는 높은 수준의 우울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가 기초로 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 및 역할이론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완전은퇴와 우울 그리고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고령자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내적 자원의 매개모형을 검증한 선행연구(김현순 & 김병석, 2007; 권태연, 2009)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자면, 결국 국내 중·고령자들은 주된일자리든 이를 종료한 후 새롭게 갖게 되는 일자리 혹은 기존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한 일자리든 직업역할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좋은 심리적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특기할만한 부분은 점진적은퇴자들이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완전은퇴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차적으로 주된일자리 은퇴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은퇴자에게도 그 상설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가정했지만, 연구결과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는 지속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들 집단은 은퇴를 보다 점진적으로 겪음으로써 본인의 심리내적 구조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은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었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만을 바탕으로 점진적은퇴자가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심리적 건강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기에는 유의하여 해석해야할 부분이 있다. 이는 주된일자리로부터의 은퇴의 특성이나 점진적은퇴를 위해 선택한 새로운 일자의 질적 측면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은퇴의 자발성 여부(De Vaus et

al., 2007; 현우영, 2016) 및 주된일자리와 새로 진입한 일자리가 동일한지 여부(Zhan et al., 2009)에 따라 점진적은퇴자와 완전은퇴자의 은퇴 후 경험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를 구분하지 않은 본 연구의 경우 해석에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은퇴 당시의 상황 및 일자리의 특성 등과 관련해 보다 주관적인 개인의 평가를 포함시킨 후속연구의 보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스트레스원과 반응 사이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스트레스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은퇴 상황 속에서 자아존중감 저하를 겪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증진이 스트레스 상황 속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지점이 될 수 있음을 고민해볼 수 있다. 또한 점진적은퇴자가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자아개념 및 심리적 건강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는 생애후기 역할상실에 노출된 중·고령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이들의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 3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은퇴를 재정의 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은퇴는 경제활동 유무의 이분법적 개념으로 정의했으나, 최근에 등장한 연구들은 은퇴를 단일 사건으로 보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형태라고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의 많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주된일자리를 떠난 후에도 다양한 직업적 옵션을 통해 완전한 노동시장 이탈에 이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완전은퇴자와 주된일자리 종사자 간의 심리적 차이를 넘어, 주된일자리 은퇴과정 속에서도 점진적이은퇴자와 완전은퇴자 간의 은퇴 후 적응에는 차이를 보임을 확인했다. 실제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분법적으로만 이들의 은퇴여부를 묻는다면, 은퇴유형에 따른 서로 다른 경험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점진적이은퇴자들이 스스로를 주된일자리를 종료했다는 점에서 은퇴자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현재 경제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비은퇴자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혼동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는 은퇴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은퇴유형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둘째, 은퇴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개인 내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 규명했다는 점이다. 은퇴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부 연구들에서는 소득의 상실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한경혜 & 손정연, 2012).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에게 있어 직업이란 소득원을 넘어서도 자아개념 및 정체감과

같은 내적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Atchley, 1976; Hooker, 1991). 이에 Pearlin et al.(1981)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사용하여, 은퇴가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그 관계 사이를 이어주는 자아개념과 관련한 변인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실제 연구결과 완전은퇴를 겪는 중·고령자들은 점진적은퇴자 및 주된일자리 종사자와의 비교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우울로 이어지는 매개효과가 드러났다. 반면 점진적은퇴자는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매개효과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역학적인 관점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졌던 지난 은퇴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의 시도는 은퇴자의 역할상실, 역할전이의 경험을 보다 면밀히 고찰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셋째, 종단적으로 구성된 전국규모의 국내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존의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갖는 한계점을 보완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에 걸쳐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8차, 9차, 10차시 자료이다. 해당 자료는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제주도를 포함한 9개도에서 표본을 추출한 전국 대표성을 지닌 패널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과 외적 타당도를 비교적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특성, 나아가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른 외국 연구의 결과를 국내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 패널자료를 활용하는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또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연구의 가장 큰 취약점인 건강한 근로자 효과, 즉 선택적 편향의 문제를 기존 횡단연구에 비해 보완했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은퇴 이전의 시점인 8차시의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상태를 통제시킨 후, 은퇴 후 시점인 10차시의 중·고령자 심리적 건강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횡단자료를 사용한 연구들에

비하여 은퇴가 개인의 심리 및 자아에 미치는 결과를 파악하는데 더 유리하다.

2. 실천적 함의

본 연구가 갖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고령자에게 은퇴란 스트레스원으로서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퇴자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심리적 복지감을 보고하거나, 은퇴자와 비은퇴자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외국의 일부 문헌들과는 달리 국내 중·고령자에게 은퇴는 혼란, 불안을 조성하는 전환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때 다가오는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급된다면 은퇴 후 생활에 보다 적응적일 수 있다. 실제로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은퇴준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파악한 바 있다(Bruce & Bert, 1987; Scott & Beck, 1984; Wendy, 1988; 안기선 & 김윤정, 2007 재인용). 이에 은퇴자들이 삶의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역할을 종료하더라도 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은퇴자들이 기존에 가치를 두었던 직업역할 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주된일자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심리적 건강상태 및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보고했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들이 50대면 일반적으로 주된일자리에서 은퇴한다는 현실(방하남 외, 2009)을 고려한다면, 중·고령자가 주된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점진적 은퇴자의 경우 완전은퇴자에 비해 직업역할을 일부 유지함으로써 주된일자리 종사자와 심리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주된일자리를 종료한 후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이 있다면 중·고령자의 상실감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
본법에 의거해 실시 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해당 사업
이 질적으로 보다 향상되어 참여자들에게 적합하고 사회적 가치가 큰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면, 이는 역할상실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노출된 중·고령자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울러 중·고령자가 역할에 두는 보다 주관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면,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취업활동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
할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기타 활동, 가령 봉사활동 및 여가활
동 등을 증진하기 위한 개입도 제안해볼 수 있겠다.

셋째, 은퇴자의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의 자
아존중감에 개입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역할상실이 심리적 건강에
의 부정적 반응까지 발현되는 과정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된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 및 점진적은퇴자
집단과 비교했을 때, 완전은퇴자들은 은퇴 후 자신에 대해 덜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높은 우울수준까지 이어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일차적으로는 스트레스에 효
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대응하는 방식이
나 태도, 관리방법의 교육 및 훈련 등으로 구성될 수 있겠다(신연희,
2004; 유창민, 2015 재인용). 또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
과를 바탕으로, 은퇴 상황 속에서 저하될 수 있는 중·고령자의 자아존
중감을 증진하는 프로그램도 제안할 수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을 향상 프로그램은 자기통제력과 결정력 향상, 신체적 활
동능력 향상, 갈등 및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정여주, 2005),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중·고령자들의 더 나은
심리적 건강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 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은퇴의 각 유형이 우울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그 관계를 은퇴 이후의 자아존중감 변화가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개념적 및 방법론적으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했고, 스트레스 과정모델, 역할이론 및 지속이론을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했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은퇴가 사회경제적지위로서의 대리변수일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직업역할은 개인의 사회경제적지위와 특히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적인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관련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가 8차시(2013년) 기준 주된일자리에 근무하는 중·고령자라는 점에서, 애초에 이들이 전체 중·고령 근로자들의 경험을 완전히 포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은퇴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은퇴가 개인의 삶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안지선 & 전해정(2012) 및 한경혜 & 손정연(2012)의 연구 결과, 은퇴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남성 집단에서 유의했다. 또한 중년기와 노년기, 즉 연령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Jang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녀에게서 직업역할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확인된 반면, 노년기 남녀에서는 그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인구학적 특성, 특히 직업역할과 관계성이 깊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 역시 후속연구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보가 풍부한 패널데이터를 재구성해서 사용했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8차시, 9차시, 10차시의 세 개 차시만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은퇴가 개인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선을 설정하고, 이후의 단기간 동안 은퇴를 경험한 이들의 심리적 건강 및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준실험설계의 맥락에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에 첫 조사가 시작되어 2015년 10차시까지 조사가 이루어져 패널 대상자들의 상당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누락된 집단, 즉 결측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분석 대상자들의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아우를 수 있는 패널분석이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8차시에서 10차시로 넘어가는 중에 누락된 결측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8차시 당시에 주된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9차시와 10차시를 거치는 중에 탈락된 162명은 최종 모형에 포함된 1030명과 비교했을 때 성별, 8차시 경상소득,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결측치가 무작위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넷째, 주된일자리와 점진적은퇴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다. 본 연구는 직업의 특성을 소득변수를 통해 통제된 기존의 연구(최옥금, 2011)를 바탕으로, 모든 대상자가 주된일자리에 종사 중인 8차시의 소득과, 은퇴 후인 10차시의 소득을 포함시킨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두 변수 간에는 높은 다중공선성이 의심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차시 소득 변수를 최종 모형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는 남아있는 변수가 제거된 변수의 정보를 최대한 내포하는 것이라는 통계적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소득만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주된일자리와 새로 진입한 일자리의 동일성 여부가 점진적은퇴자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난 논의(Zhan et al., 2009)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러한 일자리 특성의 정보를 포함한 후속연구를 제언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된일자리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가 고려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역할이론과 지속이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아개념 형성에 기여한 주된일자리의 상실이 개인에게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퇴 후 우울감의 변화 및 매개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변화 등을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된일자리를 개인의 판단에 의해 구분한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정의했다는 점에서 실제 대상자가 주된일자리라고 명명된 직업에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관여(Engaged)되어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를 기초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바탕으로 은퇴를 스트레스로 상정하여 이로 인한 심리적 건강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에 앞서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한 은퇴의 유형화를 시도했고, 역할이론 및 지속이론에 따라 이러한 유형 별로 은퇴 후 개인의 심리적 건강이 달라짐을 가정하고 이를 검증했다. 또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강조하는 매개효과로서의 자아존중감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 전반에 있어 대표성 있는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기존 은퇴연구가 가진 선택적 편향 및 인과관계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는 은퇴에 대비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원을 넘어선 개입의 지점도 고민해볼 수 있다. 또한 완전은퇴자에 비해 점진적이은퇴자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건강상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한국 중·고령자에게 직업역할이 주는 의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실천적인 함의를 가지며,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건강하고 활기 있는 생애후기에 대한 논의가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APA, 권준수 외 11인 (공역).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서울: 학지사.
- 강상경, & 권태연. (2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단일호), 332-355.
- 강희숙, & 김근조. (2000). 원저: 일부지역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과의 관련성. *대한보건연구 (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6(4), 451-459.
- 고승덕, 손애리, & 최윤신. (2001). 연구논문: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1), 3-10.
- 권치영, 김선웅, 임중철, & 이홍직. (2007). 연구논문: 일자리 참여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2), 427-443.
- 권태연. (2009). 노년기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초고령노인 집단의 스트레스 요인이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 2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1), 163-196.
- 강상경, & 권태연. (2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단일호), 332-355.
- 김동배, & 손의성. (2005). 한국노인의 우울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노년학*, 25(4), 167-187.
- 김봉균, 하연주, & 최송식. (2014).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종단적 연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4(1), 115-132.
- 김재엽, 김동배, & 최선희. (1998). 노인부부의 스트레스와 갈등, 우울증, 그리고 권력. *한국노년학*, 18(3), 103-122.
- 김지경. (2005).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 비교. *사회보장연구*, 21(2),

- 55-76.
- 김지경, & 송현주. (2010). 중고령 은퇴자들의 은퇴 후 경과기간별 은퇴생활 적응의 영향요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6), 83-101.
- 김태근. (2006). u-Can 회귀분석. 서울: 인간과 복지.
- 김효정, 고선규, & 권정혜. (2008). 남자노인의 은퇴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3(1), 73-89.
- 김현순, & 김병석. (2007). 연구논문: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27(1), 23-37.
- 김혜미, 문혜진, & 장혜림. 성인기 자아존중감 변화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1).
- 민성길. (2015). 제 6 판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박경숙. (2003). 55 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3(1), 103-140.
- 박경하. (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다양성과 불평등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291-327.
- 박영미, & 김병규. (2015). 일반논문: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7(1), 243-263.
- 방하남, 강석훈, 신동균, 안종범, 이정우, 권문일, 한국노동연구원.(2009).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 & 신인철. (2011). 강요된 선택: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재취업의 동학분석. *한국사회학*, 45(1), 73-108.
- 보건복지부. (2014).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 백은영. (2009). 은퇴자의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44(단일호), 345-371.
- 성지미, & 안주엽. (2004). 자영업과 가교일자리. *노동경제논집*, 27(2), 1-27.

- 송지은 & Marks, N. F. (2007). 결혼 및 은퇴 상태가 노년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0(1), 25-47.
- 신동균. (2009).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에 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9(2), 1-41.
- 안기선, & 김윤정. (2007). 산업체 남성 근로자를 위한 은퇴준비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1), 93-118.
- 안지선, & 전해정. (2012). 중년기 은퇴로의 전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65-85.
- 엄인숙. (2012). 노인의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2(1), 73-90.
- 유창민. (2015). 발달장애자녀를 돌보는 노년기 부모의 돌봄스트레스 과정모델 검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창민, & 강상경. (2015). 발달장애자녀를 돌보는 노년기 부모의 돌봄스트레스 과정모델 검증. *한국장애인복지학*, 28, 29-48.
- 윤지은, & 전해정. (2009). 연구논문: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와 정신건강: 소득수준과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29(2), 743-759.
- 윤현숙, & 이미진. (2007). 은퇴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2), 393-408.
- 윤현숙, 윤지영, & 김영자. (2012). 노년기 거주형태의 변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1), 249-271.
- 이민수, 최윤경, 정인과, & 곽동일 (2000). 한국 어느 도시지역의 노인성 우울증 역학조사. *노인정신의학*, 4(2), 154-163.
- 이상균. (2007). 사회복지연구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12(단일호), 19-36.
- 이아영. (2012). 중고령근로자의 은퇴과정유형 결정요인과 은퇴과정유형이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국제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지. (2013). 노인우울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운. (1999). 사회불안과 우울의 인지특성: 비합리적 신념, 역기능적 태도, 핵심신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99-211.
- 이지현, 강형곤, 정우식, 채유미, & 지영건. (2008). 연구논문: 취업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서울지역 남성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1), 143-156.
- 이현기. (2003). 노년기 조기퇴직과 경력마감형태. 한국사회복지학, 52(2), 33-61.
- 이현주, 강상경, & 이준영. (2008). 노인우울증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요인과 건강행태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8(4), 1129-1145.
- 임중철, 주경희, & 임병우. (2012). 노인의 일자리참여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7(단일호), 29-50.
- 장인협, & 최성재. (1987).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지연. (2003). 중·고령자의 경력이동. 한국사회학, 37(2), 95-121.
- 전해숙, & 강상경. (2009). 노년기 우울궤적의 예측요인: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한국노년학, 29(4), 1611-1628.
- 전혜정, & 김명용. (2014). 노년기 취업이 우울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의 성차. 한국노년학, 34(2), 315-331.
- 정여주. (2005). 연구논문: 노인미술치료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년학, 25(1), 73-86.
- 정은경, 하정화, & 한경혜. (2015). 베이비 부머의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5(3), 355-385.
- 정은석, & 강상경. (2015). 실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5(1), 84-109.
- 지연경, & 조병은. (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

- 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지은정. (2006). 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한국사회복지학, 58(3), 135-168.
- 차경옥, & 김연주. (2009). 은퇴유형에 따른 은퇴가계 특성 비교: 전통적 은퇴와 점진적 은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4), 95-114.
- 최문정. (2005). 고령근로자 은퇴과정에 관한 연구: 주된 일자리와 은퇴과정 계층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영, 이승은, & 박현식. (2015). 사회적 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취업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9(단일호), 9-29.
- 최옥금. (2011). 우리나라 중, 고령자의 은퇴 과정에 관한 연구: 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 자리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1(1), 15-31.
- 통계청.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3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_____ (2014). 2014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_____ (2015). 2015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한경혜, & 손정연.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과정, 경제적, 관계적 자원과 심리적 복지감: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단일호), 291-330.
- 허준수, & 유수현. (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7-22.
- 현우영. (2016). 가교 일자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백의, & 김혜연. (2010). 중, 고령자의 고용형태별 퇴직과정 유형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7(1), 291-319.
- 황미구, & 김은주. (2008).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감,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및 노인의 개인적인 특성이 삶·직무·사회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3), 137-156.

- Allison, P. D. (1994). Using panel data to estimate the effects of event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3(2), 174-199.
- Arrighi, H. M., & Hertz-Picciotto, I. (1994). The evolving concept of the healthy worker survivor effect. *Epidemiology*, 189-196.
- Atchley, R. C. (1976). *The sociology of retirement*. Halsted Press.
- _____ (1989).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The gerontologist*, 29(2), 183-190.
- Barker, R. L. (2003). *The social work dictionary*. NASW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aumeister, R. F. (2010). The self. *Advanced social psychology: The state of the science*, 139-175.
- Blau, Z. S. (1973). *Old age in a changing society*. New York: New Viewpoints.
- Bossé, R., Aldwin, C. M., Levenson, M. R., & Ekerdt, D. J. (1987). Mental health differences among retirees and workers: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Psychology and aging*, 2(4), 383.
- Burt, C. E., Cohen, L. H., & Bjorck, J. P. (1988). Perceived family environment as a moderator of young adolescents' life stress adjust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1), 101-122.
- Cahill, K. E., Giandrea, M. D., & Quinn, J. F. (2006). Retirement patterns from career employment. *The gerontologist*, 46(4), 514-523.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38.

- Campbell, J. D., Chew, B., & Scratchley, L. S. (1991).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Daily Ev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59(3), 473-505.
- Carter, M. A. T., & Cook, K. (1995). Adaptation to retirement: Role changes and psychological resourc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1), 67-82.
- Cast, A. D., & Burke, P. J. (2002). A theory of self-esteem. *Social forces*, 80(3), 1041-1068.
- Chan, D. W. (1998).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Hong Ko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5(1), 145-163.
- Chen, Y. P., & Scott, J. C. (2003). Gradual retirement: An additional option in work and retirement. *North American Actuarial Journal*, 7(3), 62-74.
- Christ, S. L., Lee, D. J., Fleming, L. E., LeBlanc, W. G., Arheart, K. L., Chung-Bridges, K., ... & McCollister, K. E. (2007). Employment and occupation effects on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American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6), S399-S403.
- Clark, R. L., & Quinn, J. F. (2002). Patterns of work and retirement for a new century. *Generations*, 26(2), 17.
- Cohen, G. D. (1990). Psychopathology and mental health in the mature and elderly adult. Birren, J. E. & Chaie, K. W.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3rd ed.)(pp359-371). Sandiego, C.A: Academic Pr.
- Crocker, J., Luhtanen, R., Blaine, B., & Broadnax, S. (1994). Collective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White, Black, and Asia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03-513.

- Dave, D. R., & Rashad, I. I. and Spasojevic, J.(2008). The Effects of Retirement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utcomes. *Southern Economic Journal*, 75(2), 497-523.
- De Vaus, D., Wells, Y., Kendig, H., & Quine, S. (2007). Does gradual retirement have better outcomes than abrupt retirement? Results from an Australian panel study. *Ageing and Society*, 27(05), 667-682.
- Epstein, S. (1973). The self-concept revisited: Or a theory of a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28(5), 404.
- Gecas, V. (1982). The self-concept.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3.
- Geerlings, S. W., Beekman, A. T. F., Deeg, D. J. H., Twisk, J. W. R., & Van Tilburg, W. (2002). Duration and severity of depression predict mortality in older adults in the community. *Psychological medicine*, 32(04), 609-618.
- George, L. K. (1993).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life transi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3-373.
- Gergen, K. J. (1971). *The concept of self*.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Gibson, R. C. (1987). Reconceptualizing retirement for black Americans. *The Gerontologist*, 27(6), 691-698.
- Gujarati, D. N. (2009). *Basic econometrics*. Tata McGraw-Hill Education.
- Gunderson, M., & Riddell, W. C. (1988). *Labour market economics: Theory, evidence and policy in Canada*. McGraw-Hill Ryerson Limited.
- Gustman, A. L., & Steinmeier, T. L. (1984). Partial retirement and

- the analysis of retirement behavior.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 37(3), 403-415.
- Hooker, K. (1991). Change and stability in self during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An intraindividual study using P-technique factor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4(2), 209-233.
- Jang, S. N., Cho, S. I., Chang, J., Boo, K., Shin, H. G., Lee, H., & Berkman, L. F. (2009).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s: results from a baseline survey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gbp014.
- Kantarci, T., & Van Soest, A. (2008). Gradual retirement: Preferences and limitations. *De Economist*, 156(2), 113-144.
- Kernis, M. H., Cornell, D. P., Sun, C. R., Berry, A., & Harlow, T. (1993). There's more to self-esteem than whether it is high or low: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6), 1190.
- Kim, S., & Feldman, D. C. (2000). Working in retirement: The antecedents of bridge employment and its consequences for quality of life in retire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6), 1195-1210.
- Kim, J. E., & Moen, P. (2002). Retirement transitions, gend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life-course, ecological model.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7(3), 212-222.
- Kim, J. I., & Kim, G. (2015). Social Structural Influences on Healthy Aging: Community-Level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Survival Probability of Becoming a Centenarian for Those Aged 65 to 69

- in South Kore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81(4), 241-259.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Maestas, N. (2010). Back to work expectations and realizations of work after retire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s*, 45(3), 718-748.
- Mann, M. M., Hosman, C. M., Schaalma, H. P., & de Vries, N. K. (2004). Self-esteem in a broad-spectrum approach for mental health promotion. *Health education research*, 19(4), 357-372.
- Maslow, A. (1987).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Vol. 11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Mein, G., Martikainen, P., Hemingway, H., Stansfeld, S., & Marmot, M. (2003). Is retirement good or bad for mental and physical health functioning? Whitehall II longitudinal study of civil servant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7(1), 46-49.
- Midanik, L. T., Soghikian, K., Ransom, L. J., & Tekawa, I. S. (1995). The effect of retirement on mental health and health behaviors: the Kaiser Permanente Retirement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0(1), S59-S61.
- Mirowsky, J. (1996). Age and the gender gap in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2-380.
- Mruk, C. J. (2006). *Self-esteem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Toward a positive psychology of self-esteem*.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Newman, D. A., Jeon, G., & Hulin, C. L., (2012). Retirement attitudes: Considering Etiology, measurement,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s, and attitudinal ambivalence. In Wang, M. (Eds). *The Oxford handbook of retirement* (pp. 228-248). Oxford University Press.
-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7-356.
- Pearlin, L. I., Mullan, J. T., Semple, S. J., & Skaff, M. M. (1990). Caregiving and the stress process: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heir measures. *The gerontologist*, 30(5), 583-594.
- Pearlin, L. I., & Bierman, A. (2013).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in research into the stress process. In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pp. 325-340). Springer Netherlands.
- Price, R. H., Choi, J. N., & Vinokur, A. D. (2002). Links in the chain of adversity following job loss: how financial strain and loss of personal control lead to depression, impaired functioning, and poor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7(4), 302.
- Quick, H. E., & Moen, P. (1998). Gender, employment and retirement quality: A life course approach to the differential experiences of men and wome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3(1), 44.
- Quinn, J. F., & Burkhauser, R. V. (1990). Work and retirement.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307-327.
- Quinn, J. F., Burkhauser, R. V., & Myers, D. A. (1990). Passing the torch. *The influence of economic incentives on work and retirement*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Kalamazoo, MI).

- Quinn, J. F. (1999). *Retirement patterns and bridge jobs in the 1990s* (pp. 1-23). Washington, DC: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eitzes, D. C., Mutran, E. J., & Fernandez, M. E. (1996). Does retirement hurt well-being?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and depression among retirees and workers. *The Gerontologist*, 36(5), 649-656.
- Reitzes, D. C., & Mutran, E. J. (2006). Lingered identities in retirement. *The Sociological Quarterly*, 47(2), 333-359.
- Robins, R. W., & Trzesniewski, K. H. (2005).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3), 158-162.
- Roosa, M. W., Sandler, I. N., Beals, J., & Short, J. L. (1988). Risk status of adolescent children of problem-drinking par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2), 225-23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65). The measurement of self-estee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297, V307.
- Ruhm, C. J. (1990). Bridge jobs and partial retire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482-501.
- Sachs-Ericsson, N., & Ciarlo, J. A. (2000). Gender, social roles, and mental health: An epidemiological perspective. *Sex Roles*, 43(9-10), 605-628.
- Sherman, E. A. (1981). Counseling the aging: An integrative

- approach. New York: Free Pr.
- Sieber, S. D. (1974). Toward a theory of role accumu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7-578.
- Steiger, A. E., Allemand, M., Robins, R. W., & Fend, H. A. (2014). Low and decreasing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predict adult depression two decades la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2), 325.
- Streib, G. F., & Schneider, C. J. (1971). *Retirement in American society*.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
- Tennen, H., Herzberger, S., & Nelson, H. F. (1987). 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 The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5(4), 631-660.
- Thoits, P. A. (1983). Dimensions of life events that influence psychological distress: An evaluation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Psychosoci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33, 103.
- Troll, L. E., & Skaff, M. M. (1997). Perceived continuity of self in very old age. *Psychology and Aging*, 12(1), 162.
- Ulrich, L. B., & Brott, P. E. (2005). Older workers and bridge employment: redefining retirement.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2(4), 159.
- Van den Bogaard, L., Henkens, K., & Kalmijn, M. (2014). So now what? Effects of retirement on civic engagement. *Ageing and Society*, 34(07), 1170-1192.
- Van Solinge, H. (2012). Adjustment in retirement. In Wang, M. (Eds). *The Oxford handbook of retirement* (pp. 311-324). Oxford University Press.
- Von Bonsdorff, M. E., Shultz, K. S., Leskinen, E., & Tansky, J. (2009). The choice between retirement and bridge employment: A continuity theory and life course perspectiv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9(2),

79-100.

- Wang, M. (2007). Profiling retirees in the retirement transition and adjustment process: examining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s of retiree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2), 455.
- Wang, M., Zhan, Y., Liu, S., & Shultz, K. S. (2008). Antecedents of bridge employmen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4), 818.
- Zhan, Y., Wang, M., Liu, S., & Shultz, K. S. (2009). Bridge employment and retirees' health: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4*(4), 374.
- Zunzunegui, M. V., Beland, F., Llacer, A., & Leon, V. (1998).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among Spanish elderl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3*(5), 195-205.

부록: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도구 설문문항

종속변수: 10차시 우울감 (CES-D)

항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도무지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독립변수: 은퇴유형

[2013년 조사 8차시]

문 1) 귀하는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근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임금근로자
- ② 자영업, 고용주
- ③ 무급가족종사자
- ④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 ⑤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문 2) (모든 취업 응답자) 2012년 12월 31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월

문 3) (모든 취업 응답자) 2012년 1년간 일을 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연간 총 _____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_____일

문 4) (모든 취업 응답자) 2012년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주당 평균 _____시간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의 하루 평균 _____시간

[2014년 조사 9차시]

문 1) 귀하는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근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임금근로자
- ② 자영업, 고용주
- ③ 무급가족종사자
- ④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 ⑤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문 2) 2013년 1년간 귀하께서는 다니던 직장(사업)을 그만 둔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문 3) (모든 취업 응답자) 2013년 1년간 일을 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연간 총 _____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_____일

문 4) (모든 취업 응답자) 2013년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주당 평균 _____시간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의 하루 평균 _____시간

[2015년 조사 10차시]

문 1) 귀하는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근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임금근로자
- ② 자영업, 고용주
- ③ 무급가족종사자
- ④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 ⑤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문 2) 2014년 1년간 귀하께서는 다니던 직장(사업)을 그만 둔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문 3) (모든 취업 응답자) 2014년 1년간 일을 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연간 총 _____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_____일

문 4) (모든 취업 응답자) 2014년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주당 평균 _____시간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의 하루 평균 _____시간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Rosenberg's Self-esteem)

항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Abstract

A Study on Depression Level Following Different Retirement Types in Middle and Late Life : The Mediating Role of Change in Self-esteem

Kim, Yaej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retirement is regarded as one of the major life transitions, its impact on individuals needs to be examined. Pearlin's stress process model was applied upon a premise that retirement could work as stressor in terms of role loss and role transition. This study aims to figure whether retirement as stressor leads to increase in depression level which represents outcome of the stress. In accordance with the stress process model, the role of internal resource was also discussed in order to figure its mediating effect. Specifically, self-esteem was included as internal resource as withdrawal from a career job in which an individual strongly

engaged would impact on one's self negatively.

Furthermore, retirement is not defined as sudden event in this study by regarding present labor market reality, instead, its different types were considered. Recently a number of mid and old aged people tend to enter into bridge job or part time work even after retiring from career job. This people do not abruptly turn into retirement, but gradually exit the labor market. This study took this 'Gradual Retirement' into account along with the 'Complete Retirement'. These two types of retirees might adapt to their post-retirement life in different way. In accordance with the role theory, people who completely leave the work role after career job retirement could undergo anxiety and confusion. On the other hand, based on logic of the continuity theory, gradual retirees who sustain their work role even after career job loss could experience more adaptive role transition than complete retirees. Upon the assumption so far, this study is to compare depression level and self-esteem following different retirement types.

The major hypotheses include: (1) Compared with career job employees, complete retirees will show higher depression level that is mediated by decrease in self-esteem, and (2) Compared with career job employees, gradual retirees will show higher depression level that is mediated by decrease in self-esteem.

The wave 8(2013), wave 9(2014), and wave 10(2015) from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were longitudinally

analyzed. People(aged 50+) working for their career job in 2013 were initially selected, then they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occupational change over 2014 and 2015. Here, the career job was defined as a full time job that has been lasting for more than 10 years. 1,030 individuals took part in the analysis in total, and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first group 'Career Job Employees' consists of people continuing the career job until 2015, and the second group 'Gradual Retirement' includes people whom either entering into bridge job or turning into part time job during 2014 to 2015. The last group 'Complete Retirement' is composed of people who fully exit the labor market after the career job. The reference group for the analysis was 'Career Job Employees'.

The Baron & Kenny's approach were employed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change in self-esteem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each retirement type and depression level. Basic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ealth related variables were controlled in the final model, besides the self-esteem and depression level in 2013 were also adjusted for better explanation in causality.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1) Compared to career job employees, complete retirees showed higher depression level, and this associat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decrease in self-esteem, and (2) Compared to career job employees, gradual retirees showed no significantly different level neither in self nor mental health, even if they also underwent career

role loss as complete retirees.

Despite several limitations due to secondary data analysi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academic and social work practical sense.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mplete retirement works as stressor, which in turn aggravates depression level via decrease in self-esteem. This association supports the logic of stress process model and role theory.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mproving retirees' self-esteem when intervening to protect their mental health following retirement. On the other hand, gradual retirement is not likely to work as stressor. Although gradual retirees too experienced retirement process as complete retiree group, the alternative work role maintained their self and mental health level as before, which supports the continuity theory. Based on these results, providing role that replaces former career job could work as a strategy for retirees' better adjustment.

Keywords: Retirement Types, Retirees' Depression Level, Change in Self-esteem, Stress Process Model

Student Number: 2014-22323